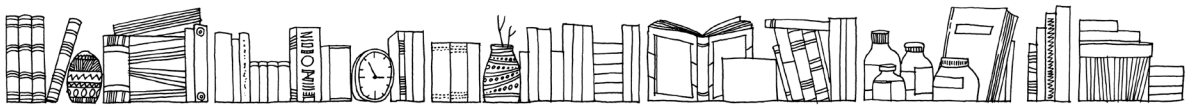




오후 1시 00분 땡! 치자마자 식당은 배고픈 영혼들로 북적북적합니다. 맛있는 메뉴인가 달려가 보고, 배가 고파 달려가고, 친구들과 달려갑니다. 좋은 식성을 자랑하는 간디학교의 식당 줄은 치킨이 나오는 날이면 현관까지 줄을 서 있곤 합니다. 이렇게 매끼 밥을 해 주시는 식당 쌤들께 반찬 투정을 해서 죄송하고, 또 항상 감사합니다!♥

-편집장 김예림(4학년)



차례

여는 글	2	간디인의 조건
졸업식 특집	4	입학에서 졸업까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순위 공작단 간디학교에서 배운 것들 6년을 담기엔 모자란 -썰풀이- 졸업 후의 계획은? 청탁글
반가워요 후원인	24	역시 후원하길 잘했어~
우리끼리	28	해피 바이러스 미녀 삼총사
배움속으로	34	그 겨울, 감성이 분다
생활관 이야기	40	아름다운 밤이에요~
사실	44	자치 활동, '자치' 맞나요?
화제의 인물	52	GOD정책의 축복이 있으리니
간디IN의 짧은 소식	60	간디인 스케줄러 / 간디IN의 짧은 소식
기자후기	62	기자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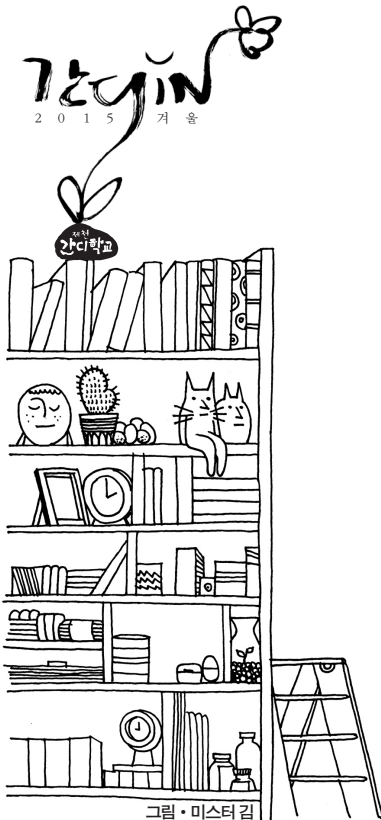


그림 • 미스터김



간디인의 조건

김예림 편집장(4학년)

언제나 느끼지만 학교에서 보내는 하루는 지루할 만큼 길고 한 달은 번개 치듯 짧습니다. 2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 사건 사고를 뒤로 하고 어느새 학기말입니다. 재밌는 수업, 지루했던 회의, 이번 학기 목표 등 모든 게 끝나 가니 좋기도 아쉽기도 합니다. 때론 즐겁고 때론 힘든 학교에서 살아가는 간디인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는 우리의 생활을 돌아본 지난 1박 2일 캠프에 이어 ‘인간의 조건’ 주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간 1박 2일 캠프에서 나왔던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해 보고 음주, 흡연, 전자기기, 위원회와 각종 생활 약속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고쳐 나가며 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죠. 수업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회의와 간담회까지 하려니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일주일이었습니.

이 와중에도 기자들은 마감을 지켜야 합니다.

가을 호에 이어 겨울 호까지 마감을 열흘씩이나 넘겨 ‘일상다반사 위기 시즌 3’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인간의 조건’을 찾는 정신없는 와중에 글을 낸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감 날 취재를 시작한 이한솔 기자, 삽화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할 일이 없었던 이령경 기자, 결국 에피소드를 모으지 못했던 최유경 기자, 마감 날 녹취록도 채 풀지 못한 손채은 기자 모두 모두 수고했습니다.(^^)

겨울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학교의 큰 행사 중 하나는 졸업식입니다. 간디학교에서 지나간 6년을 지내고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죠. 간디인 겨울 호에서는 곧 졸업하는 6학년들의 이야기를 한별 기자와 이예슬 기자가 고생해서 담았습니다. 6년간 함께하며 재미있는 이야기, 사고 쳤던 이야기, 남긴 흔적과 역사, 간디학교에서 배운 것들 등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호에 마감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기자 후기에 엽사를 넣기로 했었는데, 한별 기자의 기자 후기 사진을 보고 누군가 안경원숭이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예쁜 사진을 넣기 위해 애쓴 듯합니다. (^^) 이번엔 한별 기자의 예쁜 얼굴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색다른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강생 전부가 남학생인 ‘시 쓰기’ 수업인데, 손채은 기자가 홍일점으로 취재에 다녀왔습니다. 마침 가을을 맞이해 열린 즉흥 백일장에 가서 너~무 재밌는 취재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가을, 겨울에 접어들며 감성으로 젖어드는 수진 쌤과 시 쓰기 수업의 결과물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활관 이야기’를 맡은 최유경 기자에겐 여러모로 속이 탔던 겨울 호였습니다. 학년 방을 소재로 쓰는 바람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남/녀 기숙사 방장 회의에 들어가랴, 에피소드를 모으기 위해 선배들의 방을 돌아다니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편집장에게 보낸 파일은 깨지고, 사진은 못 구하고, 공책도 잃어버리는 사고뭉치였지만, 언제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역시 1학년답습니다.

칙칙한 학교도 생기발랄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신입생이 들어올 때와 신입 쌤들이 들어올 때인데, 최근 새로 들어오신 여자 쌤 세 분을 이한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발랄하고 웃음 많은 여자 쌤들 사이에서 찢찢매지나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칭) 젊은 쌤들의 나이도 들을 수 있다는 소문이! ‘화제의 인물’에는 엄청난 인물이 났습니다. 타로, MC, 논문, 연극 등 각종 분야에서 활약한 인물인데요! 화보 콘셉트로 이불 안에서 속살이 보이는 컷을 찍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음성 지원이

되는 듯한 인터뷰도 재미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디인의 조건은 뭘까요? ‘인간의 조건’ 주간을 보내며 든 의문입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도난, 음주, 흡연, 폭력부터 우리 스스로 하지 말자고 약속한 매점, 일반 식품, 생활 규칙까지 공동체 약속이 당연하게 지켜지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규칙이 되기도 합니다. ‘간디학교’의 사랑과 자발성이 현실적 대안과 타협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간디인의 조건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어느 쪽이 됐든 그 과정에서 현재만 보지 않고 미래까지 내다보는 간디인이 됐으면 합니다.

올해 초에 다이어리를 사며 언제 다 채우나 했는데, 어느새 12월 달력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지난 1년이 콕콕 채워져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제 글은 현재에 치우쳐 학교 생활이 너무 우울하게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사춘기 청소년 같습니다. 학교도 심각했다가, 들떴다가, 우울했다가, 행복했다 합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방황하며 간디인의 조건을 찾습니다. 간디인으로 살려면 난 어떻게 해야 하나! 후원인 분들에게 소식을 전해 드리는 간디인의 기사가 마냥 즐겁고 신나기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민을 담은 내용이 전해진다면 좋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졸업식 특집

입학에서 졸업까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졸업식 특집

순위 공작단

1. 가장 잘생긴/예쁜 6학년은?

남자

- 1위: 김종화(31표)
- 2위: 김한솔(19표)
- 3위: 김수용, 박수열(5표)

여자

- 1위: 신지은(32표)
- 2위: 박록리(14표)
- 3위: 유현영(12표)

2. 가장 음란한 6학년은?

- 1위: 박수열(26표)
- 2위: 김진규, 전수정(15표)
- 3위: 신지은(13표)

3. 학교 밖에서 만나면 반가울 6학년은?

- 1위: 박수열(12표)
- 2위: 김수용, 최소은(11표)
- 3위: 이민지(10표)

4. 가장 어려보이는 6학년은?

- 1위: 이민지(46표)
- 2위: 김진규(18표)
- 3위: 최소은(4표)

5. 가장 성숙해(늙어)보이는 6학년은?

- 1위: 박수열(52표)
- 2위: 나현준(15표)
- 3위: 신지은, 전수정(5표)

6. 학교와 가장 잘 어울리는 6학년은?

- 1위: 최민현(16표)
- 2위: 박수열(13표)
- 3위: 나현준, 장기중(7표)

7. 가장 재밌는 6학년은?

- 1위: 신지은(15표)
- 2위: 김진규, 나현준(14표)
- 3위: 박수열(9표)

8. 가장 말해본 적 없는 6학년은?

- 1위: 김상연(42표)
- 2위: 김수용(7표)
- 3위: 전수정(6표)

9. 안기 좋을 것 같은 6학년은?

- 1위: 김수용, 나현준, 신지은(11표)
- 2위: 최소은(9표)
- 3위: 이민지(7표)

10. 가장 책 많이 읽을 것 같은 6학년은?

- 1위: 장기중, 홍지인(17표)
- 2위: 김수용(13표)
- 3위: 김한솔(6표)

11. 학교에 자주 올 것 같은 6학년은?

- 1위: 박수열(22표)
- 2위: 김진규(10표)
- 3위: 최민현(9표)

12. 쌤으로 다시 올 것 같은 6학년은?

- 1위: 장기중(13표)
- 2위: 박수열, 홍지인(7표)
- 3위: 신지은(6표)

13. 생태화장실에 가장 안 갈 것 같은 6학년은?

- 1위: 유현영(18표)
- 2위: 김한솔, 남궁홍(8표)
- 3위: 홍지인(6표)

14. 가장 빨리 결혼할 것 같은 6학년은?

- 1위: 장기중(11표)
- 2위: 박수열(10표)
- 3위: 김종화(9표)

15. 가장 결혼하고 싶은 6학년은?

- 1위: 박록리, 신지은(7표)
- 2위: 김한솔(6표)
- 3위: 최소은(4표)



졸업식 특집

간디학교에서 배운 것들

16. 가장 잘 먹을 것 같은 6학년은?

- 1위: 나현준(31표)
- 2위: 신지은(13표)
- 3위: 전수정(9표)

20. 학년을 대표하는 이미지의 6학년은?

- 1위: 장기중(9표)
- 2위: 김수용, 박수열, 신지은(8표)
- 3위: 김한솔(7표)

17. 글씨를 가장 잘 쓸 것 같은 6학년은?

- 1위: 홍지인(16표)
- 2위: 신지은(9표)
- 3위: 장기중(8표)

18. 글씨를 가장 못 쓸 것 같은 6학년은?

- 1위: 박수열(25표)
- 2위: 나현준(15표)
- 3위: 김한솔(9표)

19. 손이 따뜻할 것 같은 6학년은?

- 1위: 김수용(10표)
- 2위: 유현영(9표)
- 3위: 나현준(7표)

한마디 : 간디학교에서 가장 크게 배운/얻은 점

오지영 - 가뭇같은 학교...가뭇같은 인생...

박수열 - 학교를 벗어나 외부에 있는 단체에서 지내며 '올바른 가치관' 이 형성됨, 생각이 더욱 깊어짐,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들

김혜린 - 더불어 사는 것.

김상연 - 진로찾기지 뭐...

김현정 - ppt실력, 발표실력, 친구, 공동체, 관계유지법, 연애, 남자친구

김진규 - 나의 삶의 주체자가 되자.

최민현 - 하고 싶은 것을 찾는 법.

장기중 - 정을 깊이 나누며 얻은 마음 속 충족감? 그것보다는,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지 해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지.)

김종화 - 내가 하고 싶은, 살고 싶은 삶을 생각할 수 있었다./우정, 사랑

남궁홍 - 사랑과 자발성

유현영 -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양손으로 밥 먹는 법/자존감

최소은 - 많은 경험/사람들

김한솔 - 친구를 얻음.

홍지인 - 같이 잘살자.

전수정 - 보상 받으려고 뭘 하지 않는 거, 자발적으로 하는 것 ♡

이민지 - 나의 또 다른 면, 내가 좋아하는 것, 서로 이해하는 법



졸업식 특집

6년을 담기엔 모자란 -썰풀이-

한별 기자(5학년), 이에슬 기자(3학년)

사람 사는 얘기는 항상 재밌다고들 하죠. 가끔씩 라디오 사연을 듣다 피식 웃게 되던 순간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발상과 상황을 마주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연들을 주섬주섬 모아다 놓은 듯한 6학년의 썰풀이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이들의 입을 거치면 '빵이 팔꿈치 패드로' 변모하듯 달라지는가 봅니다. 귀동냥 하러 가볼까요?

Q. 학교에서의 짜릿한 추억은 대체로 몰래하는 일로 부터 나오잖아, 사고나 일탈은 뭐가 있었어?

현정: 나랑 홍이랑 밤매를 가려고 기숙사 테라스 분리수거장에서 '하나둘셋!' 하고 뛰어갔는데 앞에 공사장이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를 피하려다가 옆의 도랑에 빠진 거야. 거의 팔까지 오는 높이였는데, 우리가 너무 급해서 서로 괜챦냐는 말도 없이 '야 빨리 지갑 챙겨!!' 하고 소리부터 지르고(웃음). 그렇게 매점을 갔다 왔던 기억이 나.

혜린: 나는 밤매를 한 번도 안 가봤어.(다들 놀람) 예전에 헛님언니(08학번)랑 가려고 했는데 소나무에 왔을 때 썸 밑에서 썸 다섯 분 정도가 올라오고 계신 거야.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밤매점을 못 갔어.

수정: 신매점은 티비 나오고 김치도 주고 그랬잖아.

수용: 신매점은 나한테 라면 안 끓여줬어. 그것 땀에

화나서 그 뒤로 구매점 갔는데.

중화: 예전에 신매점만 가면 지은이가 티비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

수정: 맞아. 지은이가 좋아하는 티비 프로그램 하는 날이면 맨날 매점가자고 했어.

수열: 나 형근(10학번)이랑 강당 거울 깨서 50만원 물었었고, 수용이랑 축구하다 학교 차 와이퍼랑 앞 유리 부순 적도 있어. 그 때 수용이는 도망갔었지.....

수용: 야 난 그 때 골키퍼였어. 나는 깰 수가 없었다고.

수정: 예전에 애들이랑 카페 창문을 넘어간 적 있는데. 그 때 테전실 문을 뚫고 들어가서 보드게임하고 놀았어. 그것 때문에 가족회의 올라가서 사과도 했었지.

한솔: 그 때 니가 갑자기 창문을 넘어가는 바람에 같이 따라간거야.

수정: 너네가 부추겼었어!!

민지: 그래도 니가 진짜로 창문을 넘어갈 줄은 몰랐지, 그렇게 잘 넘을 줄은 더더욱 몰랐고.(웃음)

Q. 학교에 남긴 흔적이나 역사가 있다면?

혜린: 102호에 마스크팩 내가 붙인 거야.

수용: 박수열은 204호에 '간디 최고 훈남 박수열' 이런 거 써놨었는데.

진규: 아 우리 1학년 때 소강당 생겼잖아. 그 때 내가 홍보영상 만들었는데.

수정: 우리 1학년 때는 강당에 방석도 있었고 식당에 컵도 있었어.

수용: 또 우리 논문 1차 통과한 사람도 역대 논문 중에 제일 적었어. 네 명. 지금은 그 기록이 깨졌지만.

민지: 그리고 입학 전 예비 캠프 때 신지은이 기숙사 방 문고리 부셨어.

Q. 학년이 함께 기획했던 행사들은 어땠어?

민지: 중등단합대회! 분장도 하면서 열심이었지.

혜린: 우리가 처음이었어. 우리 때부터 부회장이 중등회장으로 바뀌면서, 중등 자치 문화가 생겼지.

현정: 담력테스트도 했었는데. 그 때 2층이 진짜 무서웠대.

중화: 나도 2층 귀신이었는데, 막 접시 던졌었어(웃음).

민지: 나 한솔이 귀신이었던 거 기억나. 한솔이가 귀신이라 교장실에 숨어 있었는데, 내가 들어갔더니 자기가 더 놀랜 거야. 불 비추면서 '누구야?!' 이려고.

수정: 우리 08학번 논문파티 준비했을 때 기억나? 우리 진짜 열심히 해줬었는데. 1-2만원씩 걸어서 샌드위치도 만들었어.

혜린: 남자애들 그 때 오렌지 카라멜 <마법소녀> 컵

였잖아. 그 때 머리에 리본을 붙여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칭테이프로 붙였던 거 생각나. 아직도 미안하다.

수용, 한솔, 수열: 진짜 아팠어.

현정: 우리 공연하는데 선배들이 우리한테 과자 막 던졌었잖아.

수용: 그걸 보고 우리가 논문파티 받을 때도 과자 막 던지고 그랬어.

민지: 우리는 아래 학년 애들이 해준 논문파티에 성이 안 차서 노래 틀어놓고 춤췄었지.

현정 그 때 누가 <백만 송이 장미> 부르지 않았어?

일동: 지은이(웃음).

Q. 잘 놀기로 유명하잖아, MT나 여행도 많이 가는 것 같던데.

혜린: 우린 거의 매 방학 때마다 엠티를 갔어. 최근에 갔던 엠티는 가평 계곡이었는데. 부대찌개 먹고, 물놀이하고 같이 게임하다 갔어.

수열: 중화네 엠티 가자고 네 명에서 급하게 모였던 적도 있어.

한솔: 오랜만에 보면 좋아.

혜린: 오랜만에 봐도 여전히 못생겼어.....라고 지은이가 말했어.

지은: 내가 언제!!

소은: 떨어져 있다 만나면 좀 더 반가운 게 있지.

현정: 우리 중3 때 천일여행으로 걸었어.

수용: 맞아, 걷기여행 했을 때가 2011년 11월 11일 아니었어?

수정: 아 맞아. 111111.

혜린: 우리 걷기여행 했을 때 장희나루 가서 라면 끓여먹고 그랬잖아. 나중에 가보니깐 그곳이 취사 금지 돼있더라. 우리 때문인 것 같아.



지영: 아, 그리고 4학년 때 필리핀 여행 가서 진짜 빵을 뽑았어.

수정: 깔리까산이었나? 내 방이 화장실 바로 옆방이었어. 근데 어느 날 혜린이가 갑자기 두루마리 휴지를 손에 쥐고 문 앞에 딱 서있는 거야. 뭔가 해서 봤는데 엄청 비장한 목소리로 '야, 쨌변.' 이랬어. 알고 보니 한참 물갈이 할 때였는데 쨌변 했다고.....(웃음)

수정: 아 그리고 물놀이 할 때 내가 비키니 뿔이 너무 불편해서 정인쌤 주머니에 넣어놨거든? 근데 정인쌤 주머니에 있던 게 빠져서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야ㅋㅋ근데 그걸 보고 한솔이가 팔꿈치냐고(웃음) 했었어.

수용: 아 신지은이 록리 가방 메고 배에서 다이빙하지 않았나?

록리: 그 때 내가 지은이한테 가방을 맡겼는데 내리고 나서 보니까 지은이랑 내 가방이 젖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 디카랑 mp3가 사망했지.

수정: 우리 와와이씨 마을에서 홈스테이 했을 때 라면 24개를 샀는데, 다음날 보니까 2개가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같은 방이었던 혜린이랑 지은이랑 록리가 먹었더라고. 그 때 흥이가 "나는 너네가 거짓말을 해서 화난 게 아니라 라면을 먹어서 화난 거야!" 하면서 바닥을 광 치고 화를 냈었지.(웃음)

종화: 아 그리고 여자애들은 버스 타고 이동만 하면 과자 한가득 사와서 맨날 먹었어.

현정: 너네는 버스에서 맨날 노래 불렀잖아.
혜린: 근데 필리핀 가서 진짜 초코무초 많이 먹긴 했어.

민지: 맞아.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밥 먹기 전에 먹고, 밥 먹고 나서 먹고, 자기 전에 먹고.

Q. 6년이란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으니 기억에 남는 쌤들도 많겠다.

현정: 4학년 필리핀 때 쌤들(정상, 정인)! 정상쌤이 우리한테 예방접종 할 필요 없다고 하고선 혼자 맞고 왔었는데. 그리고 정인쌤은 우리한테 맨날 이상한 거 먹었어. 맛있다고.

수정: 돼지 뇌도 먹였었잖아.
종화: 두리안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맛있다고 하고.

혜린: 그 이후로 우리 절대 정인쌤이 주는 거 안 먹었어. 정인쌤이 맛있다고 하는 것도 절대 안 먹고(웃음). 그래도 그 때 쌤들이랑 진짜 잘 지냈어.

민지: 그리고 3학년 담임이었던 수자쌤은 우리 생일 때마다 새벽에 와서 떡케 해주셨는데.

혜린: 난 후조쌤. 올릉도 생태여행 때 아침 다 해주셨잖아. 그리고 선호쌤도 우리 3년 담임 맡으셨지.

록리: 미리강도.
수정: 우리 2학년 때는 윤하쌤께 진짜 죄송한 일 많이 했지.

수열: 2학년 무빙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청소 안 하고 빈둥거렸잖아. 그래서 쌤이 다 나가라고 화내셨는데, 그 때 윤하쌤 혼자 다 청소하셨어.

Q.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있어?

수정: 우리 이런 말 잘 못해.
민현: 됐어, 넘어가.
(부끄러움)

민지: 아 등산가면 남자애들이 뒤에서 여자애들 가방 밀어주곤 했지. 고마웠어.

혜린: 여행 갔을 때 여자애들 배려해주는 거. 애들이 매너 있어.

민현: 우리 여행 갔을 때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여자애들 8명 정도가 갑자기 나를 베고 누웠어. 그래놓고 '와 민현이 진짜 매너 있다' 이러는 거야! 난 아파서 가만히 있었던 건데 의도치 않게 매너남이 되었어.

(진행자: 같이 생활하면서 가장 좋을 때가 같이 밥 먹을 때랑 평소라고(일상) 나왔어.)

수정: 그냥 밥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야?(웃음)

수용: 그니까. 그냥 밥 먹는 거. 섭취.

Q. 같이 수다 떨다보면 얘깃거리가 어쩔 그리 많나 싶었는데. 기억나는 에피소드들 좀 들려줘.

혜린: 한솔이 PMP랑 지갑 2학년 무빙에서 동해 바다에 바쳤잖아(웃음). 3학년 제주도 무빙 때는 현준이 안경이 제주도 바다에 빠졌었고. 그리고 지은이가 제주도 가는 배에서 지갑을 떨어뜨렸어. 손에 밀키스랑 지갑을 들고 있었는데 바다에 밀키스가 떨어질 뻔한 거야. 그거 잡으려고 다른 손에 쥐고 있던 지갑을 놓아버렸지. 그래서 지갑대신 밀키스를 얻었어.(웃음)

수열: 그리고 2학년 무빙 때 나랑 진규랑 옷 갈아입고 있었는데 수정이가 갑자기 우리 쪽 창문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창문 밑으로 숨었는데 창문 바로 앞까지 와서 막 들여다보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

혜린: 3학년 때 밤에 남아서 논문을 쓰는데, 간식으로 순대를 먹었어. 지은이가 종화한테 입 벌려서 안에 있는 음식을 보여주는 장난을 쳤는데 종화가 놀라서 입에 있던 순대를 다 뽑았었지.

수열: 기숙사 복도마다 소화전 사이렌 울리는 거 있잖아. 내가 1학년 때 엄청난 호기심에 그걸 눌렀거든? 근데 나는 내가 누른 소화전만 울릴 줄 알고 그 스피커만 막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여자기숙사까지 다 울리더라. 그래서 진짜로 소방관 왔었어.

혜린: 그리고 록리랑 현영이가 충주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덕산 행이 아닌 마산행 버스를 탄거야. 아저씨가 표 검사를 안 하고 그냥 태운 거지.
록리: 맞아, 그래서 한참 갔는데도 덕산이 안 나오는 거야. 난 그제서야 알았어. 3400원 내고 마산까지 싸게 갔지(웃음)

수정: 아 그리고 작년 지영이 생일 파티 때. 그 때 우리가 몰래카메라를 했거든? 그래서 인턴십을 2학기

로 미웠다고 하고, 소은이가 졸업하고 김 턴이라는 농약회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하고, 나는 인턴십을 필리핀 우가우가 섬으로 간다고 하고, 한솔이는 후쿠시마 간다고 하고.....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속였어. 근데 지영이가 다 믿어서 울기까지 한 거야. 소은이 결혼하는 거 반대라고, 소은이 엄마한테 전화 하겠다 그러고(웃음). 너 나 우가우가 섬 간다는 것도 믿었어?

지영: 믿었다...

민지: 진규 머리 초록색으로 염색했었잖아. 그 때 별명 미역이었는데.

수열: 우리 1학년 때 수정이한테 택배가 왔었는데 먹을 게 들어있었나 봐. 근데 수빈누나(05학번)랑 수정이랑 둘이 추격전까지 벌이면서 서로 자기 거라고 뺏고, 난리도 아니었어. 박스 막 뜯어서 가져가고.

민지: 1학년 때 한피가 싸우다가 책상을 찢는데 자기가 넘어갔어.

민현: 한솔이랑 한피가 싸우다 한솔이가 한피를 때렸는데 자기 손이 부러졌었지.

수정: 근데 개인적으로 싸운 적은 있어도 단체로 심하게 싸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졸업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걸 실감하고 있을 6학년들. 어렵פות이나마 각자 졸업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씩 얘기를 들어볼까요.

졸업후엔 뭐하고싶어?

수용: 겨울방학 때 사람 없는 학교에 와서 망원경 써 보려고 했는데. 여행도 가고 싶어. 기중이랑 국도 종단이나 할까.

현영: 나야 뭐, 춤추겠지.

종화: 그냥 여행 다니다 군대 갔다 오고, 나중에 맥주집이나 하나 차릴까 싶은데.

민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엄마한테 빚을 갚을거야. 제과제빵 자격증을 다 따서 2년 정도 뒤에 원범이 형(05학번)네 아저씨가 하는 카페에서 잠시 일할 것 같아. 아니면 수정이네 외가에서 만들고 있는 생협 단지에 생길 생협 빵 카페로 들어갈 수도 있어.

상연: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초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싶고, 운전도 배우고, 될 수 있으면 동생 상범이하고 커피로 창업을 해보고 싶어.

한솔: 그냥 좀 놀다가 음악공부 할 것 같아. 자취도 할 것 같고.

진규: 내년엔 앨범 내야지. 12월이랑 1월에 공연도 있고. 그리고 필리핀 다시 가는 거? 가서 조난당하는 게 목표야.

기중: 서울 가서 자취할 것 같고, 그곳에서 검정고시 학원 다니고 시민단체를 갈 거야. 그리고 남산에 있는 24만 무예단에 가서 배우고, 덕산 자주 와서 희석쌤께도 배우고, 무예 시연단 같은 거에 들어갈 것 같아.

수열: 인턴십 끝나고 이전에 알바 했던 곳에서 일할 것 같아.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해서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제주도 갈 거야. 한울(08)이랑 같이 살아야지. 제주도에 돈 다 떨어질 때까지 있을 거야.

현정: 난 일단 덕산을 뜰 거야. 그리고 서울 가서 간호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연세의원 간호사 자리를 차지할 거야. 맥노리에서 연극 하다가,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 따서 그것도 하고 싶어. 그리고 돈이 좀 많아지면 워킹홀리데이 꼭 할 거고, 정토에서 해외봉사 하면 갈 것 같아. 일단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지: 난 가만히 있을 거야. 밖에 절대 안 나가. 원래 졸업하고 나서 오빠 제대하면 스페인 갈려고 했는데 에볼라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엑셀 자격증 따던 게 있어서 마저 따고, 공부를 좀 더 할 것 같고, 여행도 하고 싶어. 약사(부모님 직업)는 뭐.....아직 잘 모르겠어. 난 만날 집에 있다가 너희가 부르면 나갈게. 한 1년에 두 번쯤?(웃음)

소은: 벼섯농장(부모님 직업)은 한다면 나이 들어서 하고 싶고, 졸업하고 나서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통영으로 꼭 혼자 여행 갈 거고, 해외여행은 영어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갈 것 같아. 그리고 아마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 갈 준비를 할 거야. 간호학과나 유아교육과, 재활심리학과 같은 거. 어쨌든 졸업하면 집

중적으로 뭔가를 배울 거야.

록리: 나도 여행 가고 싶어.

지은: 아직 잘 모르겠어.....

혜린: 언어도 배우고, 검정고시도 보고, 운전면허도 딸 거야. 그리고 알바를 해서 해외여행을 갈 거야. 버는 족족 떠날 거야. 해외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갈 것 같아. 아마 독일?

홍: 안산으로 이사 갈 거야. 운전면허 따고, 알바하다가, 해외 봉사를 하러 갈 거야. 뭐 자격증 따고 그러면서 살겠지.

지영: 졸업하면 검정고시 보고 수능 준비해서 대학 들어갈 거야. 만약 대학 떨어지면 대학 안 가고 바로 서울로 상경해서 새만화책 출판사에 취업하거나 할머니네 편의점에서 알바 해야지.

수정: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알바해서 돈 좀 벌고 2년 안에 대학을 가거나 유학을 갈 것 같아. 엄마는 독일 가라고 하는데 나는 영어권 나라로 가고 싶어. 그리고 대학 입학한 다음에 코이카로 해외 파견 봉사를 갈 거야. 한 1~2년 정도? 그리고 한국 와서 다시 대학 다니다 취업하고. 아, 그리고 자격증도 엄청 많이 딸 거야.



청탁글

울기엔 좀 애매한

장기중(6학년)

안녕하세요. 6학년 장기중입니다. 새파랗게 어릴 때 들어와서 어느덧 6년이 지나 새파랗게 어린 친구들에게 졸업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 성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쌓인 것도 없이 컸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무슨 말을 써야 제 졸업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편하게 쓰겠습니다.

역시 졸업할 시간이 다가오니 어릴 적을 회상하는 시간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서툴러서 좌절했던 많은 경험들과 무서운 선배들 정도가 남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참가한 계절학교를 계기로 입학하게 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하지 않는 학교', '놀고먹다 졸업하는 학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오자마자 기합을 주는 선배들과 필수 수업들을 보면서 실망했었지요. 초등학생이 학교 철학을 이해해봐야 얼마나 이해한다고.. 중등 시절을 거치면서 하나 둘 학교가 만들어진 배경과 자리 잡고 있는 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 연애는 누구보다 일찍 시작했네요. 입학하자마자 같은 학년 여자 친구에게 한눈에 반해서 고

백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억지스럽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의 끝을 보여줬던 그 때의 연애경험으로 원치 않게 옆 사람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더군요. 또 24반 무예라는 훌륭한 무예를 만나서 검만 잡으면 행복해지던 나날도 회상합니다. 고등부가 되어 나름의 공부와 방황하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학생회장도 맡아보며 검을 멀리 하게 된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픈 기억만큼 좋은 기회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거창하지만, 간디학교는 저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희 집은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적어도 가정 형편을 타하며 구매 욕구를 억눌렀던 적은 없으니까요.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준 부모님에게 늘 감사하지만, 그러한 저희 집 환경 안에서만 자랐다면 저는 고통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테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한 태도로 내 앞길만 봤겠지요. 한미 FTA도 밀양의 송전탑도 그 저 정부의 선택은 옳다는 생각으로 응원했는지 모릅니다. 경제발전을 이룩한 독재자들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듯 중학교 진학의 갈림길이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나타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간디학교에 다니며 편향되지 않은 진실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또 엄한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간디학교는 부족함에는 너그러워도 나태함에는 엄격했으니까요. 중등부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친구들과 놀고 운동하고 군것질하러 다니고...그렇게 저도 모르게 시간이 가버렸는데, 고등부가 되어서는 선배들과 어울



리며 술도 마시게 되었고 끼리끼리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위 머리가 굽어지니까 나태한 제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은 강제적이긴 했지만 이 생활이 공동체의 약속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되새기며 다시 원래의 생활 패턴을 찾아가는 등 나태한 제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성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학창 생활 중 힘들었던 기억이 너무 많이 떠오릅니다. 다만, 다 내 성장을 위해서였거니 하며 쓴웃음만 짓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했지만 자퇴하겠다는 생각 한번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느끼는 것은 제가 받은 고통보다 배운 것이 더 많다는 것이겠지요. 실로 가끔 놀랄 만큼 예전과 달라진 제 모습이 보입니다. 마냥 두려웠던 사회도, 외지에 대한 긴장감밖에 들지 않습니다. 일단 당장 제가 하고 싶은 공부들을 하며 훗날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든 힘든 세상인데, 뛰어들고 나면 부당한 현실이 몇 차례나 제 앞을 가로막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전 언젠가 도시에서, 현장에서 부당한 사회를 향

해 울부짖는 분들의 목소리에 확성기를 달아드릴 것입니다. 사실 제 밥이나 벌어먹고 살면 다행이지만 당찬 포부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지칠 때면, 매서운 칼바람에도 훈훈했던 간디학교의 나날들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변함없이 친절했던 분들부터 언제나 인상을 찌푸리던 분들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치면 밥 한 끼 사드릴게요.

졸업을 앞두고...

이민지(6학년)

간디IN에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졸업 전에 쓰게 될 줄은 몰라서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내 흔적을 하나 남기는 것 같아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두서없는 글이었지만 학교에서 지냈던 6년과 나의 10대를 마무리해보고 싶다.

어떤 글을 쓸까 고민하다가 학교에서 썼던 다이어리를 봤다. 다들 공감을 할 듯 싶은데, 다이어리를 새로 산 후 몇 개월은 열정 넘치게 글을 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글이 줄어들다. 일기를 많이 쓴 건 아니지만 스케줄러 겸 일기장으로 썼던 터라 온갖 낙서와 별별 글이 다 쓰여 있었다. 그 중 많이 보였던 말은 '피곤해, 졸려, 배고파, 집 가고 싶어, 머리아파, 개는 왜 그런대...'처럼 한탄하며 끄적인 글과, '누가 누굴 좋아한대, 누구 누구가 오늘 200일 됐다' 등의 남의 연애 얘기와, 2학년 때부터 해온 학생회 일들과 그 감정들이었다. 지금 보니 쓸데없는 말 뿐이지만 2학년 때와 4학년 때의 글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바쁜 일



상이 반복되었다는 걸 느꼈다.

나의 6년을 되돌아 보려하니 1, 2학년 때의 일이 기억이 안 난다. 마치 누가 내 기억을 빼가기라도 했는지 기억이 드문드문 남아있다. 입학하고 나서는 친구들과 학교에 적응하기 바빴을 것이고, 2학년 때부터는 학생회도 하고 사고도 치며 보냈던 것 같다. 3학년 때는 학생회에 논문에 동아리로 나름 바쁘게 지냈다. 이곳 저곳에 온갖 피해와 짜증도 쫓고, 일 하나 끝내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어 그 일들만 사라지면 뭐든 다 행복할 것 같았다. 그리고 고등부가 되자 모든 게 논문인 것 마냥 난이도가 급상승된 미션들이 주어졌고, 그것들을 하나씩 해나갔다. 미션들의 보상이 것처럼 있을 수 없는 필리핀 여행도 갔다 오고, 5학년이 되어 무빙에 가을축제 뒷풀이까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오지 않을 것 같던 6학년이 되어 인턴쉽과 인문학이라는 큰 숙제를 끝냈고, 어느덧 마지막 학년의 마지막 가정학습을 마치고 11월이 되었다.

올해 2학기 들어 한창 예비인문학을 준비할 때였나,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했었다. 우리 1학년 때는 여기가 그거였었지, 식당에는 컵 건조기도 있었고, 현관이 지금처럼 고급스럽지도 않았고, 뒷산에 소강당이 없었던 때에 남자애들은 나뭇가지를 들고 칼싸움을 하기도 했다고. 6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이도 변한 학교와 우리는 새로운 모습일거다. 긴 시간일 수도,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 6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으며, 드디어 졸업을 얘기할 시간이 되었다.

졸업을 앞둔 이 시기에는 누구나 비슷할 것 같은데, 졸업하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결국엔 실감할 새도 없이 졸업식을 하고 있을 것이고 시간은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학교를 다니면서 이말이 제일 가슴에 와 닿았지만 생각할수록 마음먹기 힘든 말이었다. 기쁜 일이던, 슬픈 일이던, 힘든 일이던 결국은 지나갈 것이라는 말. 그래서 기쁜 순간에는 당장의 기쁨을 즐기고 힘든 순간이면 다시 좋은 일이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라는 뜻

같다. 고등부가 되어 이 말을 듣고는 중요한 일을 하거나 시간이 가는 것이 느껴질때 이 문장을 대봤지만 그 때마다 씩씩해지는 마음이 들었다. 결국은 다 끝난다는 말이 뭔가 슬프게 했다. 그 만큼 현재에, 오늘에 충실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렇게 6년이 후 지나갈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시간을 더 알차게 썼을 텐데. 영어공부도 더 하고, 공연도 더 하고, 발표도 더 잘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움만 남는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더 많으니까 사현재에, 지금 당장에 아쉬움이 없도록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다.

간디학교는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남겼다. 이 나이에 배워서 안 될 것도 배웠고, 굳이 안 배워도 될 걸 미리 배우기도 했으며, 남들 다 아는 것을 안 배우기도 했다. 원래 이 시기에 알게 되는 건지 내가 먼저 알아버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알아버렸고 내 생각이 너무 치우치지 않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교복도 안 입고 시험도 안보고 공부도 안한다는 점에 끌려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내가 너무 다른 길로 가는 건가, 나만 너무 특이한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닐지 두려웠다. 하지만 이 생각은 학교를 다니면서 없어졌다. 정확히 말하면 고등부가 되면서 학교의 메리트 알게 되었다. (물론 중등부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알아챈 거겠지.) 무빙과 인턴, 축제 진행, 중등 때와는 다른 생각으로 진행한 학생회 일 등. 다시 학교의 주체가 된 것 같아서 긴장하면서 지냈다. 내가 무언가를 진행하고, 어떤 소속의 중요한 위치가 되어 보고, 사회에 나가 간디학교 학생으로 몇 주 지내보기도 하며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해하는지, 또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알게 되었다.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간디를 통해 일반학교를

다녔다면 알기 힘들었을 많은 것들을 배워 다행이라고, 다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나 간디학교의 생활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었다. 여자들은 남자들, 후배든 선배든, 선생님들까지도 좋은 정보를 주고, 힘이 되어주었기에 나는 나에 대해, 학교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 특히 6년 동안 봐온 친구들은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기에 더 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 너무 오글거리지만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

앞으로는 시간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겠지만 나는 이 나이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많은 경험을 한 것에 만족한다. 졸업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간디학교의 졸업생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혹은 해가 되지 않게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 그동안 나로 인해 힘들고 슬펐던 일들보다,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들만 기억에 남겨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학교에 놀러왔을 때 밝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모두들~~

인연

황선호(6학년 담임 쌤)

모든 간디의 쌤들은 학생들과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지낸다.

때론 너무 사랑스런 제자들이고, 때론 날 미치게 만드는 웬수들이니까.....

지금 나는 6학년 아이들의 담임을 맡고 있지만 우리의 인연은 조금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09



년 꼬꼬마 1학년 시절, 이 아이들의 담임 역시 나였으니까.

우리가 신입생과 담임으로 처음 만난 그 해, 나에게 는 참 많은 일이 있었다. 학교는 나에게 5년차 교사로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고, 가정에선 초보 가 장에 초보 아빠였으며, 아내는 둘째아이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은데다가, 10여 년 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 던 아버지의 내일이 불투명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 런 상태에서 학기가 시작된 후 첫 가정학습 즈음 많 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둘째아이가 태어났고, 곧이 어 1학년의 첫 무빙이 시작 되었다.

하지만 내려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본격적인 프로그 램을 시작하려는데 고향에서 투병 중이시던 아버지 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마음의 준비 를 하고 있던 했지만 예상보다 빨랐던 소식에 당황 스러운 마음뿐이었다. 결국 아이들을 다른 교사들에 게 부탁하고 황망히 올라가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장례를 마치고 다시 장흥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만났

을 때도 아이들과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 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강사가 와서 풍물을 시작할 때도 난 최대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던 것 같다. 사람 만나는 게 싫 었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보다는 혼자 숨어 있 는 시간을 찾아 방황하기도 했다. 그렇게 아이들은 내가 돌아온 후에도 담임의 부재 속에서 프로그램을 마쳐야 했다. 이후 학교에 복귀하고 하루하루를 보내 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긴 했지만, 담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1학년들은 여전히 담임이 부족한 상 황에서 남은 1학년을 보내야 했다.

그렇게 학년 말이 다가왔다. 부족한 담임과 신입생 사이의 시간은 다음 학년으로 이어나가 채우는 것이 마땅해 보였으나, 나는 휴직을 결정해 학교를 잠시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1학년을 마치고 방학식을 하 던 날,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작은 쪽지에 응원의 메 시지를 적어 예쁘게 묶어 전해주셨다. 정말 큰 감동 이었다. 부족한 1학년 담임에게 원망과 질타가 아닌 사랑의 응원을 보내주시다니.....그렇게 나의 간디 전

반기는 09학번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보내주신 응원 으로 막을 내렸다.

2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보 니 꼬꼬마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어 학교의 중심 이 되어 있었다. 복직하며 이 아이들과 필리핀을 갈 이 가볼까 하는 마음이 잠깐 들기도 했지만, 또 다시 내 몫을 온전히 하지 못해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중등 교사 로 복직하여 간디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렇게 나는 작업장이며 필리핀으로 바뀐 나날을 보내는 아 이들을 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했고 우리의 인 연은 부족했던 1학년 담임에 대한 기억만으로 끝나 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끈이 그리 허술하지 않았던 건 지, 다음 해에 나는 고등 교사로 가게 되었다. 우리는 멘토반, 생명프로젝트, 울릉도 생태여행, 진로프로젝 트 등 5학년의 굵직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시 만났 고, 인턴십, 인문학 캠프, 그리고 졸업까지 간디에서 의 마지막 해인 6학년 과정을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 다. 정말 인연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와 6학년의 관계 가 그 말을 이야기하기에 참 적당한 듯하다.

돌이켜보면 복직 후에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는 모르겠다. 좋은 교사가 되기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원체 낙천적이고 게으른 성격 탓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지 생각하기보단 순간순 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던 것 같다. 그래 도 다행스러운 건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함께 채워줄 좋은 교사들이 항상 옆에 있었고, 부족함에 대해 투 정하기보다는 속 넓게 이해해주는 착한 6학년 아이 들 덕분에 우리 인연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졸업식을 끝내고 교문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 같이 싸우고 화내고 울고 웃을 일들이 많이 남아 있 겠지만, 우리가 함께 했던 간디에서의 시간들이 좋은 추억이었으면 좋겠고, 졸업이 인연의 끝이 아닌 새로 운 인연을 만들어 가는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6학년들 졸업 축하해^^

아! 제천간디학교, 6년을 되돌아보며

김용섭(09 김한솔 쌤)

한솔이가 졸업을 한다.

2009년, 낫설고 물 설은 제천간디학교 입학식은 남 달랐다. 아이만 입학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가족 이 함께 입학을 했다. 아이만 간디학교를 다닌 게 아 니라 우리 가족이 모두 학교를 새롭게 다니는 기분이 었다. 13년을 거의 부모와 함께 지내온 한솔이가 부 모 곁을 떠나 혼자서 잘 지내며 생활해 나갈 수 있을 까 하는 염려도 많았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그렇게 중등과정을 무사히 마 치고, 그렇게 6년이 흘렀다. 부모와 가족의 걱정을 털 어내고 비교적 큰 사고(?) - 이런 저런 사고는 간디 학교에서 기본이지요. ㅋ - 없이 졸업을 한다. 장하 다, 내 아들. 장하다, 우리 가족^^, 장하다 09 가족^^

한솔이 교육 고민! - 최종 결정은 네 스스로가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 이 많았다. 그런데 한솔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키 운다’는 말은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했다. 어느 순간

부모가 되어 살다보니 자식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 한솔이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한솔이 초등학교 5학년 겨울 방학 때, 한솔이와 단들이 5박6일 간 전국을 일주하며 여행을 했다. 서울을 출발하여 강원도로 진부령을 넘어갔다가 7번 국도를 타고 동해를 옆에 끼고 울진을 거쳐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남해를 옆으로 해남까지, 그리고 서해를 따라 다시 서울로 2,000km를 달려 왔다. 다소 무리한 일정으로 잡았기에 운전하는 시간이 무자극했다 보니, 언제 우리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여유롭게 옆에 앉아 여행을 다닐까 하는 생각이 절로 났었다. 둘이서 하루 24시간을 함께 지내다보니 부자시간에 애뜻한 시간을 보냈겠구나 하는 생각은 완전 오해다. 서로 의견이 충돌하여 ‘이 자식은 옆에서 잠도 잘 자네’하고 투덜대며 말없이 몇 시간을 혼자서 운전만 하기도 했다. 혹시 자녀와 둘만의 여행을 꿈꾸는 부모님들께 감히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런 위험한 여행은 떠나지 마시길... ㅋ

하지만 이 여행을 통하여 한솔이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큰 결단을 내렸다. 여행 중에 산청 간디학교를 둘러 학교 구경도 하고 선생님과 면담도 했다. 학교를 구경시켜 주며 유혹(?)의 말도 잊지 않았다. ‘한솔아, 교실에 앉아 교과 수업만 하지 않는 학교도 있단다. 맘껏 현재의 삶을 즐기며 자유롭게 상상하고 지낼 수 있는 학교도 있단다! 네가 원하면 그런 학교로 진학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다!’

입학과정 - 서울대 수시모집보다 어려워ㅠㅠ

5학년 여름방학 때 김제에 있는 00대안중학교에 캠프도 다녀온 적이 있는 터라 한솔이는 살짝 고민하

는 척 하더니 대안학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국의 대안학교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딱 눈에 띄는 학교, 제천간디학교가 현미경으로 확대하듯 눈에 들어왔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 중 고 6년 과정, 비인가 학교! 여기서도 있었다. 그런데 작성해야 할 서류가 뭐 이리 많다? 비슷한 거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서류 작성에 조바심도 나고 이렇게 했는데 떨어지면, 음~ ‘절대 안돼!’하는 마음으로 온갖 좋은 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고.. 엄청난 시간과 술한 단어와 문장 사이를 넘나드는 사투 결과, 다행히 서류 합격^^ 하지만 2박3일간의 면접이 또 기다리고 있다. 산 넘어 산...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최종 합격! 야호!

그런데 한솔이가 입학해서 지내다 보니 간디의 입학 과정은 학생뿐만 가족의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절차의 복잡성이나 까다로움 정도는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실제로 한솔이 3학년때, 때를 잘못(?) 만나서 학운위 부위원장을 하며 실제 입학 면접 심사를 하다 보니 너무 좋은 분들이 입학에 희망하며 먼 길을 마다않고 면접을 오시는데, 누굴 합격시켜야 하고 누굴 불합격시키려는 게, 참 할 짓이 못 되었다. 다행히 면접만 하고 말았지만, 이후 선생님들은 지난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 간디에 다닐 학생을 최종 선발한다. 보통 2박3일 밤샘 토론은 기본이다.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 가족이 함께 입학해서 6년을 지내다 보면 학생들뿐 아니라 부모들도 모두 형제자매가 된 기분으로, 그렇게 6년이 훌쩍 간다.

간디 교육 과정 : 중학 졸업 논문, 해외 체험 학습 등등
아시다시피 간디는 대안적 삶을 대비하기 위한 주제

프로젝트 수업과 각종 작업장 참여는 물론이고, 매년 무빙스쿨과 해외체험학습을 떠나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6년을 돌이켜 보면 하나하나 소중한 체험이 없지만, 단연 으뜸은 온갖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중학교 졸업 논문과 삶의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신비한 해외체험 학습이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을 중학교 3학년 때 쓴다는 게 사실 만만치 않다. 대충 이것저것 짜집기해서 쓰면 되겠지 하면 완전 오산이다. 한솔이가 쓴 논문을 읽어봤는데, 딱 그만한 나이에 어울리는 글이면서도 다소 모자란 듯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3년간 간디를 헛다니지는 않았구나 하는 느낌이 처음으로 (?) 오는 때이다.

해외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삶의 지표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많은 아이들이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고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계기’라고도 하고 ‘별 생각 없이 간디를 다녔는데 간디를 다니는 의미를 비로소 찾았다’고도 하는 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중등 학부모님들, 애들 간디에 보내고 이런 저런 걱정과 고민이 많은 텐데,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려 보시라. 다행히 아이들은 인내의 한계가 바닥을 드러낼 쯤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6년 마무리 인턴십과 인문학 캠프

6학년을 시작하며 3개월간의 인턴십은 자기의 적성을 잘 살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여곡절 끝에 산청 성심원에서 인턴십 기간을 보낸 한솔이는 부쩍 커 있었다. 4~5학년 때 3주간 짧은 무빙과 비교하면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신의 세계관

과 가치관을 정립해가는 모습은 5학년 때까지 봐왔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간디문화센터에서 진행했던 일주일간의 인문학 캠프는 이제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마무리 정리 과정이다. 주제 정하기, 토론하기 과정들을 보면 완성된 형태가 아닐 지라도, 진지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이제는 알을 깨고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 참 대견해 보였다.

졸업 축하^^

이제 한솔이와 09학번 친구들이 간디를 졸업한다. ‘세월이 쏠살같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의 속도로 시간이 흘러간다니, 너무 과장된 비유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6년이 그렇게 흘러 갔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09 애들아! 08 지인이도!^^

6년간 축적된 기운으로 이제는 온 세상에 간디인의 향기를 맡껏 내뿜길 기대한다!

뽕밭

얼마전 가정학습 때 한솔이와 대화
한솔빠 : 한솔아! 이제 졸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한 솔 : 걱정마세요, 아빠! (죽어라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 나온 애들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믿는다, 한솔아!^^)

역시 후원하길 잘했어~

김민석 기자(2학년)

이번 겨울호 '반가워요 후원인' 코너에서는 간디학교와 아무 관계가 없는(?) 후원인을 만나보았습니다. 간디학교의 학부모도 아니고 간디학교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오랜 시간동안 후원을 하고 계시는 순도 100% 후원인 변기영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 간디학교 일반 후원인이고요. 대학생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기영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요청으로 연락을 드렸을 때 후원인님은 간디학교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후원을 하게 됐나요?

후원을 시작한 건 제 기억으로는 한 2002년이었어요. 그때 산청에서 '간디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간디라는 이름에 눈길이 갔고,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간디학교 살리기'에 동참하겠다고 인터넷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간디학교 힘내세요.' '파이팅' 이런 거 그리고 나서부터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중간에 산청에서 제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경희대로 근무하는 곳을 옮기고 통장이 바뀌었는데 그 급여통장이 바뀌면서부터일 거예요. 그래서 CMS건을 제가 문의 했었나?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간디학교를 계속 후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어서 그냥 넘어 갔어요.

그리고 소식지가 많이 왔었어요. 좋았던 게 제가 아는 사람이 간디학교를 다니고 있지도 않고 예비 학부모도 아니어서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홈페이지나 소식지뿐인데 소식지를 계절별로 한 번씩 보내주고 교장 선생님이 친필로 계절인사도 해주셔서 좋았어요.

'간디학교 살리기'로 후원을 시작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관심 갖기 어려운데 어떻게 관심 갖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20대 때 교육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 대안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풀무학교 학생도 만났었고 푸른꿈학교 학생도 여기서 잠깐 일했었고, 간디인을 만난 건 처음이지만 계속 연이 닿더라고요. 계속 대안교육 쪽에 관심이 가서 지금은 작은학교에도 후원하고 있어요.

저희가 만드는 소식지 '간디IN'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간디IN 독자로서 간디IN은 어떤가요?

나을 때마다 매번 다른 거 같아요. 내용이 보통이 꼭지에는 어떤 거, 어떤 거 테마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으면서도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나올 때마다 내용이랑 테마가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또 글을 생동감 있게 잘 쓰는 거

같아요. 읽기가 재밌어요.

간디IN을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으신가요?

밭 사진이 표지사진으로 나온 것도 기억나고요. 논문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어요. 논문주제들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접근방식도 작품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논문으로 쓰는 분들도 있고 또 상당히 진지하게 접근하고 주제도 색다르고 아주 광범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베트남에 대해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또 앨범작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나이 때도 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중등과정에서 한다는 게 참 대단했어요.

간디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간디학교는 잘 몰라서 속사정을 모르니까 어떻게 말은 못하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마지막 보루 같기도 하고 희망 같기도 해요. 요즘 중, 고등학생들 보면 잔할 때가 많아요. 여기가 중, 고등학교가 같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오후4시, 5시가 되면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그러면 여기 일하는 분들의 표현으로는 ‘녹색군단이 몰려온다’고 그래요. 녹색치마, 녹색교복입고 막 몰려오는데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잔해요. 맘껏 왁자지껄 떠들 때가 그 시간 밖에 없으니까, 그런 모습 볼 때 마다 ‘그렇게 안하고도 살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또 어른들 욕심이고 부모 욕심이지 않아요. 그렇게 안하고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학교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간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원인님이 일하고 계신 경희대 생협을 소개해주세요.

대학생협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에서 반드시 필요한 복지문제를 자발적으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풀어내려는 공동체예요. 대학생협동조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식당, 서점, 매점, 커피숍, 자판기 등 학내 복지와 각종 문화 사업까지 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저희 협동조합이 직접 진행하는 지정사업- 식당, 매점, 자판기, 서점, 커피숍의 총괄을 맡고 있어요. 저는 생협에서 직원으로만 15년 동안 일했어요. 현재 대학생협은 전국 서른 곳에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경희대 생협으로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건가요?

생협연합회에서 대학생협특별위원회라고 연합회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가 있었어요. 어떤 곳이나면 대학생협의 본부 격이에요. 대학생협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생협이 없는 학교에 가서 설명회를 하거나, 학생들 모아놓고 생협학교 캠프를 연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03년에 경희대생협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2004년에 경희대생협에서 직원을 더 채용하려고 했고 제가 파견이 돼서 2004년부터 일하고 있어요.

경희대 대학생협 팀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비영리라고 하지만 수익이 나와 급여를 주고 학생들한테 배당도 하고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출관리를 해야 되고, 또 바깥에 트렌드도 신경 써야 되고, 사업장마다 일하는 직원들의 문제는 없는지, 학생들의 요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고 그게 통상적인 일이고요. 직원들이나 근로장학생이 나오지 않으면 땀땀도 많이 나가요.

대학교 안에서 일하시니까 대학생들도 자주 만날 거 같은데 일하시면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게 있나요?

에피소드라기보다 그냥 요즘 대학생들보면 ‘내가 대학생이라면 이렇게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지금 대학생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학생들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저는 대학 때 그냥 신나게 놀았던 거 같은데 지금은 공부도 많이 하고 너무 바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안해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업체에서나 사회에서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준비할게 열 개가 넘는다고, 차라리 토익이면 토익, 뭐면 뭐 꼭 짚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시대의 대학생으로 살 게 된다면 거절 할 거라는 생각을 했죠.

대학생협에서 일을 하면 주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계속 부딪히고 바뀌는 거 같아요. 처음에 일을 할 때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협동조합 이러면 많이 알지만 처음에 사람들한테 협동조합에서 일한다고 하면 ‘거긴 뭐하는 곳이야? 농협이냐?’ 이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몰랐어요. 조금 이상한 시선으로 보기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벡타이 메고 서류가방 들고 출근하는데 저는 반바지만 입고 출근할 때도 있고 자유롭게 입고 다니니까 직장을 다니는 건지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 했던 것 같은데 지나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문제보단 생각했던 게 잘 안 이뤄지는 게 문제죠. 그땐 안 이뤄지는 꿈을 꾸니까 즐거웠는데 지금은 ‘이뤄야 되는데 이게 왜 또 다르게 꺾이지?’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학생협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80년대 말에 대학생협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정치구호가 아니라 밥을 달라는 구호가 나온 적도 있을 만큼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대학복지가 심하게 안 좋았어요. 대학에서는 식당을 임대해서 개인업자나 업체한테 맡기는데 그 분들은 이익을 많이 얻어야 하니까 밥을 안주고 면을 줬어요. 메뉴에 밥이 없는 거예요.

계속 라면, 우동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비용은 비싸고.

근데 이런 문제들은 매년 총학생회 회장이나 학생회 간부 같은 사람들이 학교랑 싸워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싸운다 해도 너무 길어지고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럼 우리가 식당을 접수해버리자’였어요. 90년대 초반에 학생들이 그렇게 대학식당을 접수해버렸어요. 약간 무례하게 물리적인 상황도 생기면서 접수를 했죠. 그리고 학생들이 돈을 모으고 아주머니를 식당에 직접 고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부 몇 명은 수업을 안 들어가고 식당에 남아서 식당 일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전담해 주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하기 했죠.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아예 생협직원들이 다 맡아서 일처리를 했죠.

굉장히 생생하게 말씀해주시는데 혹시 그 현장에 계셨나요?

저는 95학번이거든요. 저는 그때 1학년이었어요. 제 선배들은 그걸 직접 했었고 그 선배들이 졸업하기 전에 막내로 들어 온 게 저였어요. 전 쌀을 옮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끌려가서 설거지는 많이 했어요. 식당 아주머니가 아프셔서 못나온다고 그러시면 제가 대신 나와서 식당설거지를 했어요. 대신 일하고 나면 식당 아주머니들이랑 같이 막걸리 먹고... 1,2학년 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후원인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학창시절 때는



어떤 학생이셨나요?

제가 고향이 거창이어서 초 중학교는 시골에서 다녔어요. 만날 놀러 다니고 중학교 때는 태권도 선수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기숙학교로 갔어요.

기숙학교여서 전국에서 모인 애들끼리 있으니 방학 땐 친구들과 많이 돌아다녔어요.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전까지 가졌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또 꿈을 찾고 싶어서 되게 방향을 했어요.

대학생활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대학교가 시시했어요. ‘고등학교만 못하구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기숙학교니까 사실 이것저것 나쁜 짓은 친구들이랑 한 번은 다

해봤어요. 근데 대학에서는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자유를 제공하듯이 ‘너희들은 이런 거 못해봤지 이제 마음껏 누릴 거야.’ 이러는데 나는 이미 고등학교 때 누려봤던 것들이었어요.

대학교가 시시하니까 고향에 일찍 내려와서 남들보다 여름방학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하고 살지?’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그만뒀던 태권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때 생각했던 게 대학을 그만 두고 태권도를 직업으로 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심사 준비를 하는데 눈을 다쳤어요. 근데 그게 조금 심하게 다쳐서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바로 입원 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병원에 봉대를 감고 있었는데 그때 천천히 이것저것 많이 생각했어요.

스무 살이지만 나름대로 계획해놓은 인생이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일그러진 거잖아요. 그때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지금 놓친 것들이 있나?’, ‘나가면 어떻게 살까?’ 그리고 그때 만약에 눈이 안 돌아와도 암울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고집이 있었어요. 밝게 살고 싶었어요.(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그러다 학교로 다시 돌아왔는데 반겨주는 선배들이 없었어요. 선배들이 여기저기 가입하라고 해도 시큰둥하고 굳기 잡으려고 하면 ‘아, 대학까지 와서 이런 걸해야 되냐고?’ 하면서 빠져버리니까 선배들이 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근데 어떻게 소식을 알고 절 싫어하던 한 선배가 찾아와서 저와 이것저것 해보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대학생활에 흥미를 붙였어요. 그러다 대학생활에도 가입하게 됐고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루고 싶으신 일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친구들이랑 논의 중인데 새로운 작업을 하나 계획하고 있어요. 그 작업 중 하나에 학교도 있고요. 지금 저랑 같이 했던 다른 학교랑 친구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서로 바쁘다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좀 속도를 내려고 해요. 또 지금하고 있는 생협 부분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는 작업들도 생각 중이에요. 대학을 벗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있어요.

인터뷰를 하신 소감은?

일단 간디인을 만난 게 너무 감격스럽고 이번이 진짜 처음일거예요. 이렇게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고 ‘한 번 가봐야지. 가봐야지.’ 생각만하고 가보진 못해서 ‘아,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간디에게 갖고 있는 애정이 여기까지구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소식지 더 잘 읽을 게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더 있겠죠. 그 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소식지 밖에 없으니깐 알찰수록 더 자세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확 느껴져요. 근데 계속 궁금한 거죠. 뭘 보내든 감동일 거 같아요. 학교의 어떤 활동이 한 줄로만 적혀있는데도 감동일 때가 있어요. ‘역시 후원하길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터뷰를 하는 동안 참 즐거웠습니다. 후원인님의 삶의 얘기를 듣는 시간은 정말 의미 있었습니니다. 진로를 선택하고 방향하고 꿈을 찾아가는 후원인님의 얘기는 그런 고민을 시작하는 저에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또 간디학교 안에서만 하는 줄 알았던 고민과 생각들을 제가 몰랐던 곳에서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반가웠습니다. 간디인과 후원인은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도 다 같은 생각, 같은 고민, 같은 바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연들을 더 많이 만나고 알아 가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해주시고 점심과 선물까지 챙겨주신 변기영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고 싶습니다.^^

해피바이러스 미녀 삼총사

??????? 기자(1학년)

올해 간디학교에는 활력 넘치고 아리따우신 미녀 선생님들이 무려 세명이나 오셨습니다.

세분에 엄청난 에너지 덕분에 축 처지던 학교 분위기도 활력을 되찾았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꽃다운 나이에 호기롭게 덕산으로 오신 활력 넘치는 세 신입 여선생님들! 지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Q.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정호- 제 이름은 양정호 이구요, 나이는 28살인데 기사에 쓰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영어고 좋아하는 건 일본 드라마와 일본 배우들입니다.

리아- 제 이름은 김리아 이구요, 나이는 20살입니다.(웃음)

정호- 뽕치지마!!

리아- (꽃웃음) 나이는 20살이고 담당과목은 미술, 좋아하는 것은 잠자면서 웹툰보기입니다.

아름- 제 이름은 유아름 이고 담당과목은

수학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만들기를 좋아해요,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 요새는 자수를 하고 있어요.

Q. 요즘 학교생활은 어떠신가요?

아름- 1학기 때는 참 재미있었어요. 하고 싶은 활동도 많고 그 활동을 할 시간도 많았는데 2학기부터는 매일 회의 속에 살다보니 조금 슬퍼지고 있어요.

리아- 간디학교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지금이 교사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학기라 하는데 저는 이곳에 오자마자 엄청 힘든 시기를 거치니까 이 시기를 견디면 다음부터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정호- 이 학교에서 지내다보니 똥똥해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살이 후덕해지면서 마음도 후덕해 지는 것 같고 처음 인상보단 간디학교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Q. 간디학교에 오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름- 간디학교 개학날이 저의 대학 졸업식 날이었어요. 이 학교에 오기 전엔 대학생이었죠. 학생 시절에는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만날 놀고 억지로 시험 치러 가면서 지내다 학생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정호- 저도 학생이었어요. 저는 간디학교 오기 전에는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했구요, 대학원을 끝내지 못한 채 논문을 남겨두고 이곳에 왔어요. 3학년들이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이해돼요.

리아- 저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창업을 하다가 흥미가 떨어져 그만뒀고 그 후에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했죠. 북 디자이너도 하며 포스터, 동화책 디자인도 하고 작가도 하다가 모두 그만두고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Q. 그러면 왜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간디학교에 교사로 오시게 되었나요?

아름- 저는 대안교육이란게 있다는 걸 모르고 자랐어요. 일반 학교를 다니고 국가가 만든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하기 싫은 수업을 억지로 들어 시험을 쳐야 되는 이유를 끝까지 납득을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배우다가 대안학교를 알게 되었고 대안교육은 저한테는 신세계였어요. 그중에서도 간디학교가 대안교육에 모범이 되는 학교라 생각해서 언젠간 간디학교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호-저는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될 것인가 라는 고민과 함께 나는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은가 라는 고민을 지금도 안고 살아요. 그래서 학교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저는 경쟁을 부추기는 일반교육 시스템을 싫어하는데 그런 경쟁구도가 없는 학교는 대안학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간디교육연구소의 간디 대학원에서 대안교육에 대해 공부했죠. 그곳에서 후조 쌤을 만나 제천간디학교를 알게 되었고 교사 모집공지가 났을 때 지원을 했어요.

리아- 이곳에 오기 전 여러 일을 해보니 제겐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게 맞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주변의 추천으로 이곳에 왔고 저는 간디학교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이곳에 왔는데 와보니 간디학교에 철학이 제가 추구하는 철학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로써 놀라웠고 내가 왜 이 학교에 올 수 있었는지 생각했어요.

Q. 각자 간디학교에 대한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맞는 기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직접 간디학교에 와보니 어떤 점이 생각했던 것 과 다른 것 같나요?

정호- 간디학교의 철학인 사랑과 자발성의 따라 아이들이 굉장히 자발적일 줄 알았어요.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비슷한 맥락에서 간디학교 아이들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수동적인 것 같아요. 자신들이 인정한 약속에 대해 책임지려는 모습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리아- 간디학교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태로 들어왔지만 미술을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는 것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이 적어서 실망했고 남은 시간동안 미술작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작업을 할 시간도 부족하더군요. 좋았던 점은 사회에서 추구하는 경쟁구도 때문에 솔직한 말없이 겉으로만 웃고 남을 처널 궁리만 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이곳에 와보니 간디학교 사람들은 가식 없이 진솔하게 이야기 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좋았어요.

아름-간디학교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로 살아가면서 간섭 없이 스스로 수업을 선택해 들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자신이 선택한 수업인데 왜 흥미가 없어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있어온 학교니까 규칙도 매우 탄탄할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제 자신이 납득하기 어려운 규칙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점은 학생이나 교사가 뭔가를 하려거나 배우려고 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Q. 세분이 보신 간디학교 학생들은 어떤 것 같나요?

정호- 저는 학원 강사일도 하고 위탁형 대안학교도 갔다와봤는데 일반학교 학생들은 겉으로 보기엔 서로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친구보다 성적이 안 나왔다고 답답해하고 짜증내며 성적 때문에

상처받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간디학교 학생들은 누군가를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이겨야 한다, 잘 해야한다 라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축구할 때는 빼고요.(웃음) 그런 점은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름- 대학생 때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학생들에게 많이 괴롭힘 당했었어요. 저에게 욕도 하고 짓곳은 말장난도 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간디학교 학생들은 사람답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일반학교 학생들은 시험 같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어 보여 마음이 아팠었는데 간디학교 학생들은 항상 밝고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아 보기가 좋아요.

리아- 간디학교 학생들은 보면 말을 참 잘한다는 게 느껴져요. 청산유수. 그리고 자유로워요. 야생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야생 같지만 그 안에 큰 흐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간디학교 학생들을 보면 독특한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보다 의젓하더라고요. 만날 제가 사고 치면 학생들이 수습해줘서 도움을 받은 게 너무 많아요.

Q. 세분 모두 덕산에 사시는데 학교에 가지 않는 휴일은 어떻게 즐기시나요?

정호- 질문 있어요. 우리가 휴일이 있었나요?

리아- 없었는데? 저는 진짜 휴일이면 학교로 가서 그림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요.

아름- 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어디로든 떠나요. 방학 때도 전라도 여행도 갔다 오기도 하고 은 휴식 기간에는 서울이나 대구로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오는데 진짜 힘들 때 는 집에서 조금도 안 움직여요.

정호- 휴일에는 특별하게 할 일 없이 집에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상들을 보거나 학교로 가서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나 보기도 해요. 아직은 특별히 취미가 없어서 휴일은 계획 없이 보내는 것 같아요.

Q. 세분모두 같은 건물에서 사시는데 같이 살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리아- 3학년들이 할로윈 때 저희가 사는 건물에 와서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던 것 하고 정호, 아름 쌤 방에 모여서 떡볶이 만들어 먹었을 때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호-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름 쌤 방에 박쥐 한 마리가 살았었어요,

아름_악 !!!!!!!

정호 - 아름 쌤이 저한테 방에 나방이 있는데 불을 켜면 사라진다는거예요, 문득 어릴 적 기억에 집에 있었던 박쥐생각이 나서 아름 쌤에게 말씀드렸더니 웬걸, 진짜 박쥐인 거예요.

그래서 박쥐를 잡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다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결국 며칠 전에 아름 쌤 방에서 시체로 발견됐지요.



이한결 기자- 티비에서나 나오던 박쥐가 집에 있다니 엄청 놀랍네요.

아름- 으악! 기억하기 싫어요. 청소를 하다가 박쥐시체를 발견했는데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 떨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쓰레받기로 박쥐를 들어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Q. 간디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할때는 언제인가요?

리아- 아이들이랑 그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아름- 행복했던 일은 많지만 한 가지를 고르라면 학교 행사할 때인 것 같아요.

행사부 이기 때문에 행사 준비 단계는 진짜 힘들지만 행사가 딱 시작 되면 너무 좋아요. 행사가

잘못 될까봐 노심초사 하며 지켜보지만 준비한 행사가 순조롭게 흘러가면 행복한 것 같아요.

정호- 저는 무언가를 계획해서 하는 일들보다는 즉흥적으로 만나는 일에 행복을 느끼는데 갑자기 고등 작업장 구경하러 돌아다니거나 퇴근시간에 기숙사에 올라간단던지 소소하게 아이들의 일상을 보는 게 행복해요. 기숙사에 가면 아이들이 해맑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도 해주기도 하고 시니컬하게 왜 왔냐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모습들이 좋아서 아름 쌤이랑 기숙사에 올라가서 야식을 팔 때도 너무 재밌어요.

Q. 간디학교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아름- 아이들을 만나는 건 항상 재밌고 즐겁지만 공적으로 아이들과 일을 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업무상으로 만나면 항상 의견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걸 아이들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부담감이 커요. 제 자신이 선생님이란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호- 저는 남을 편들어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아이들의 편이 못되어주는 순간들을 이번 학기에 겪었어요. 이 아이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을까 짐작해야 하는 상황, 이 아이를 편히 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힘들었어요. 그 아이를 믿고 싶는데 주변에서 그 아이를 내가 알고 있는 아이와 다르게 이야기 할 때 마음이 아팠어요. 또 힘든 것은 쌤들이 회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웃음)

리아- 저는 생태 화장실 가는게 힘들어요. 오늘도 화장실 안 가서 너무 힘들어요....

Q. 앞으로 간디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가르치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수업이 있나요?

아름- 올해는 집중식 수업 말고는 직접 계획하고 개설한 수업이 없어요. 내년엔 직접 개설한 수업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고 간디학교를 올 때부터 생각했는데 마을 아이들과 쌤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밌는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진행하고 싶어요. 아이들과 놀아주기 보단 학생들이 수업도 개설해 가르쳐주면서 마을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리아- 디자인 작업장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학교에 디자인이 필요하단걸 절실히 느꼈거든요. 작업장이 있으면 미술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들 엄두가 안나요.

정호- 학교 수업인 직조수업을 듣고 싶어요. 직조수업을 듣고 싶어서 시간표도 바꿔가며 수업에 참여하려했지만 바빠서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아리 빵아저씨 담당교사도 꼭 해보고 싶어요. 영어선생님으로서는 수업을 해보니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어려워해서 내년엔 활동적인 영어수업을 해보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간디학교에서 살면서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정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의 꿈은 학교를 만드는 거 예요. 그러면 언젠간 간디학교를 떠나야겠죠? 그래서 간디학교 가족들에게 많은걸 배워 좋은 학교란 무엇인지 알고 저의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리아-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예술을 하는게 목표예요. 그게 다예요.

아름- 저는 모든 학년들의 담임을 맡아보고 싶고 행사부, 연구부, 학생부, 교무부도 다해보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맡아서 경험해 보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인터뷰 참여해주신 아름, 리아, 정호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분에 엄청난 입담에 인터뷰 내내 진땀을 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교생활이 기대되는 신입 여선생님들, 재밌게 지켜봐주세요! ♡

그 겨울, 감성이 분다

손채은 기자(2학년)

지금 제천간디는 가을 단풍이 한창입니다. 비록 이 글을 받아보실 때엔 겨울이겠지만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수업이 이번 학기에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바로 시 쓰기 수업입니다. 감성 넘치는 남자 사감 쌤으로 알려진 수진 쌤이 진행하는 수업이죠. 아,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감성 넘치는 남학생들로만 구성된 수업이라는 점! 그래서 이번에 필자가 수진쌤과 만나보기도 하고 수업에 참관하기도 했답니다. 수진쌤과 나는 시 쓰기 수업 얘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 쓰기 수업을 개설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봤을 때 간디학교 친구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글쓰기 중에서 설명문, 논설문 같은 걸 생각하면 비교적 손쉽게 쓸 수 있는 글은 시 쓰리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고민하다 자신의 감수성을 돋보이고 개인적으로 글을 쓰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시 쓰기 수업을 개설한 것 같아요. 또 친구들이 시라는 장르를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네요.

그렇다면, 수업을 개설하기 전에 바랬던 수업 분위기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여자 친구들 몇 명이 함께해서 좀 더 화사한 수업을 원했는데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남자애들만 신청해서 화사하진 않고 삭막한 분위

기에요. (삭막해요?) 제가 생각했던 시 쓰기 수업은 시평도 하면서 서로 장점 같은 걸 얘기해주는 즐거운 분위기를 생각했는데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삭막하고 캄캄하고 답답한 분위기랄까? 그래서 자주 밖으로 나도는 것 같네요. (그래도 남자 밖에 없는데 좋은 점이 없을까요?) 좋은 점은 뭐, 막 대해도 된다는 거?(웃음)

현재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계획은 일주일에 한편씩 시를 써오고 그 시를 시평 하고 이론을 하나 배운 뒤, 배운 내용을 가지고 습작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수업에 애들도 꾸준히 안 들어오고 또 이번 년도에 수업 시간도 되게 불안정 했죠. 그래서 현재는 숙제로 시 한 편씩 써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시스템이에요. 수업 시작 전엔 추천 시를 찾아와서 읽기도 하죠.



이번 학기에 유독 사건이 많아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무엇이 있으세요?

음. 일단 앞에서 말했었는데 시 쓰기 수업에 정말로 여자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또 수업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잡았더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다음에 한다면 2시간 정도로 잡고 싶네요.

시 쓰기 수업 현장을 가보니 재밌더라고요, 시를 가장 잘 쓰는 시왕이 있을까요?

각기 장점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시라는 건 원래 맛있게 써야 해요. 시를 읽을 때 찰진 글이 있는데 그런 글은 4학년 최형규 군이 잘 써요. 그 친구가 와……. 형규는 정말로 글에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에 차한비. 한비는 감각적이고 약간 오래 생각해볼 수 있는 글을 써요. 근데 한비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일단 장점은 글이 뭔가 멋있어 보여요. 깊은 뜻도 있어 보이고. 하지만 이 친구가 시를 써야 하는

데 자꾸 노래 가사 같은 것만 써낸다는 거? 마지막으로 1학년에 승택이는 제2의 류시화를 꿈꿀 수 있을 만한 시를 써요. 손발이 오글거리는 그런 사랑 시예요. 와……. 최고최고

앞으로 수업할 때 진행할 시 주제가 있을까요?
주제는 딱히 없어요. 시 쓰는 기법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서. 주제는 딱히 없고, 다음에 한다면 비유법에 관해 수업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심화 과정으로 간다던가. 또 이번에 했어야 했는데 못한 주제가 있어요. 패러디라고 다른 시인의 시를 내 감각으로 패러디 하는 거죠.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아쉽네요.

앞으로 수업 하실 때 애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여자 친구가 꼭 들어와 주면 좋겠다는 점이 있어요. 그 외는 뭐, 여러 가지 시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즐거운 수업을 만들자는 점.

최근에 시인에 등단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



용인지 알려주세요!

저도 제가 어떤 시가 당선됐는지 모르겠어요. 문학종합계간지에 응모를 했는데 그 쪽에 총 시 6편을 보내서 2~3편이 당선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작업 중이래요. 12월 초에 발간이 된다고 하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끝나면 섭섭할 것 같아 필자가 홍일점으로 수업에 참관하고 왔는데요, 때마침 가을의 향기를 맡으러 야외 수업을 나갔었습니다. 울긋불긋 물들은 경치를 바라보기도 하고 정자 아래서는 즉흥 백일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때, 쓴 형규의 '단풍'은 인터뷰 당시 수진쌤께서 가장 인상 깊은 시라고 꼽을 만큼 재미있는 작품이었는데요, 형규의 '단풍'과 수진 쌤이 꼽은 시왕들의 글을 한 번 감상 해보시죠.



〈단풍〉

-4학년 최형규

노랑 빨강 물드는
단풍을 보며 드는 생각
아, 씨발 나도 물들고 싶다
분홍빛으로

〈이제 곧 움츠러들 단풍나무 아래에서〉

-3학년 차한비

가지 마,
난 아직 너를 보며 눈을 깜빡이지 못했어.
붉게 물든 단풍이 파란 대지를 뒤덮어
보랏빛의 세상이 되기 전까지
자랑스러운 사계절 내내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소나무 옆에,
한순간이라도 자랑스럽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빨강계
더 붉게 물들어 나를 홀릴 때까지
바람을 거슬러 이 자리에,
언제나 내 위에 있어 주길
빨강지만 어두운 그늘 밑에 있을 수 있게

〈단풍〉

-1학년 오승택

붉게 물든 너
너 바라보는
붉게 물든 내 눈

빨개서 웬지 예쁜 너
덕분에 행복한 내 눈

가까이 봐도 예쁘다
멀리서 봐도 예쁘다

어디서 어떻게 봐도
예쁜 너 단풍

자 여기까지 필자가 준비한 시왕들의 시였고요. 짧게나마 제천 간디의 뒤늦은 가을을 느끼셨는지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수진쌤과 자신의 시 저작권을 흔쾌히 허락해준 시왕들 고맙습니다! 🍂



생활관 이야기

아름다운 밤이에요~

최유경 기자(1학년)

요즘 생활관 분위기가 많이 바뀐 듯합니다. 바로! 방 구성원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오픈하우스라는 기숙사 축제가 시작되며 달라진 방 구성원으로, 전과는 달리 색다른 분위기의 오픈하우스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학년 방이란?

기존 남 여 생활관은 3학년들이 방을 짜고 모든 학년이 골고루 들어간 방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남 여 생활관은 같은 학년끼리 방을 쓰는 학년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기말마다 학년 방을 써 왔던 남자 생활관과 달리 여자 생활관에선 학년 방은 최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여자 생활관 회의에 처음으로 학년 방을 쓰자는 의견이 올라온 건 아무래도 생활관에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도 나이 차로 인해 선후배가 서로 불편할 수 있다고 해서입니다. 그렇게 여자 생활관은 짧은 가정학습까지 2주간 학년 방을 써 보기로 했고, 그와 동시에 남자 생활관도 여자 생활관과 동일한 이유로 학년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학습 이후 여자 생활관

회의에서 논의한 학년 방에 대한 반응은 호의적이었고, 그렇게 남 여 생활관 모두 방학까지 학년 방을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학년 방을 사용함에 따라 생활관에 존재하던 당번들도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자 생활관의 경우 원래 기상, 퇴소, 간식, 목욕, 취침 등 당번을 한 명씩 정해 매주 생활관 회의 전에 당번 회의를 했던 방식이라면 이번에는 청소, 간식, 퇴소 당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당번들을 방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각 방에서 방장을 뽑아 매주 생활관 회의 전에 하던 당번 회의 대신 방장 회의를 진행해 참석합니다. 각 방 당번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생활관 회의에 올라온 안건, 건의 등을 검토합니다.



남자 생활관은 방장 회의와 당번 회의가 둘 다 존재하는데, 방장 회의는 각자의 방에 방 구성원들이 들어왔는지와 그 후에 진행될 생활관 회의에 올라온 안건과 건의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당번 회의에서는 방 당번이 아닌 생활관 당번이 모여 일주일간 어땠는지 얘기하며 회의를 진행합니다.

장점과 단점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학년 방을 쓰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건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현재 학년 방을 쓰고 있는 간디인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전체적인 만족도와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 설문지를 돌려 본 결과,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5%,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5%,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였습니다. 긍정

적인 의견으로는 좋다, 학년끼리 있으니까 편하다 등의 만족하는 의견이었고, 그에 반해 남 여 생활관 모두 공통적으로 당번 관리가 잘 안 된다, 시끄럽다, 청소가 안 된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 생활관에는 학년 방 취지에 맞지 않게 고학년이 저학년 방에 자주 들어온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학년 방을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각자의 방을 오지랖이 제공한 테마에 맞추어 꾸미고, 남 여가 서로의 생활관에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행사인 오픈하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지랖에서 정해 준 다양한 테마로 즐겁게 꾸며진 오픈하우스! 테마로는 불교 경찰서, 우주 힙합, 원시시대, 군대, 노래방, 복고 뷰티숍 등이 있었습니다. 오픈하우스가 끝나고 오지랖에서는 남 여 생활관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방을 하나씩 뽑아, 줌(제천간디학교에서 사용되는 화폐)과 하루 중



일 Free~할 수 있는 Free day 쿠폰을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상품 때문에 오픈하우스의 열기가 더욱 뜨거웠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예의 BEST 방은 어디였을까요?

{남 201호}- 3학년 방

남 201호의 주제는 '원시시대'였는데, 방 중앙엔 모닥불도 만들었고, 구석엔 잠자리인 듯 이불로 만든 천막이 그럴싸했습니다. 특히 우어진 군(3학년)의 '우가우가' 소리가 압권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원시시대'라는 주제에 맞지 않게 방 안에 흐르는 가요가 언밸런스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여 201호}- 고등부 방

여 201호의 주제는 '불교 경찰서'라는 다소 난해한 주제였는데, 방 구성원 모두 정갈하게 같은 소재의

옷을 차려입은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하고 인사를 하며 다니기도 하고, 방 안에서는 들어온 사람들에게 죄목을 붙여 종이에 죄수 번호를 써서 들게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학년 방으로 시행된 오픈하우스라서 그런지 유난히 단합력이 돋보이게 꾸며진 방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만큼이나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오픈하우스였어요. 앞으로 생활관이 조금 더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자치 활동, ‘자치’ 맞나요?

이한슬(2학년)

“끝나고 전산실 장학생 남아요!”

“도서위원 잠시만 모일게요!”

“동아리 연합회 회의하니까 남아요!”

가족 회의가 끝날 무렵, 알림 시간엔 늘 많은 자치 활동이 모임을 알린다. 실제로 11월 27일 가족 회의에선 총 13개의 자치 활동들이 회의를 알렸다. 이렇듯 간디학교에는 많은 자치 활동들이 자리 잡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다. 집행부 학생회 소모임 일상다반사 등 열한 개의 자치 활동들은 학교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학생들은 간디학교 자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전교생에게 자치 활동에 대한 설문을 돌려 보았다. 전체 응답자 80명 중 자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62명(77.5%)에게 자치 활동의 참여도를 물었을 때 44명(71%)은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18명(29%)은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귀찮다’는 답변이 대다수였고, ‘지겨워서’, ‘

열심히 하는데 육만 먹으니까’ 등 대부분 비슷한 답변들이었다. 설문 조사 결과, 자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약 1/3은 자치 활동이 더 이상 ‘자치 활동’이 아닌 ‘지겹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치 활동 참여자들의 의욕이 저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치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물었을 때, 44명 중 33명(75%)은 자발적으로, 9명(20%)은 주변인의 권유로, 나머지 2명(5%)은 억지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반면, 자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18명 중 5명(28%)이 자발적으로, 7명(39%)은 주변인의 권유로, 6명(33%)은 억지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설문 조사 결과,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변인의 권유나 억지로 참여한 비율이 더 낮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자치 활동의 문제점은 자발성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자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맡아야 할 일은 더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에서 자치 활동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업과 자치 활동의 우선순위가 애매해졌으며, 자치 활동 내에서도 우선순위의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다. 수업과 자치 활동의 우선순위를 놓고 보자면 당연히 수업이 우선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기준이 애매해진다.

예를 들어 보자. A는 학생회 행사부 부원이고, 오늘은 축제 당일 날이다. 그래서 오전에 축제를 위한 무대 설치를 도우러 가야 한다. 그런데 오전에 수업이 있다. 그렇다면 수업을 포기하고 축제 준비를 해야 할까, 축제 준비를 포기하고 수업을 들어야 할까? 이런 상황은 단순히 수업과 자치 활동이 아닌 ‘수업과 자치 활동+축제’가 된 셈이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 준비를 하면 수업은 무단결석 처리가 되고, 수업에 들어가면 축제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문제는 수업과 자치 활동뿐만 아니라 자치 활동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B는 동아리 모임과 학생회 회의, 그리고 장학생 활동까지 겹치는 바람에 고민 끝에 장학생 활동은 가지 못했고, 동아리 모임과 학생회 회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어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간디학교 자치 활동의 가장 큰 핵심 문제는 앞서 나왔던 ‘자발성’이 아닐까 싶다. 아무리 인원을 늘리고, 회식을 자주 가고, MT를 해도 결국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또 주변인들의 말에 혹해서 넘어가지 말고, 정말 이 일이 나에게 맞는지,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지 등 여러 가지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풀어 봤던 문제들 외에도 자치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치 활동은 늘어난 모임 시간도 잡아야 하는데, 제한된 시간 문제 그리고 특정 몇몇에게만 일이 몰리는 현상 등 더 나은 자치 활동을 이뤄 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을 많이 주고, 일을 공정하게 배분한다 해도 간디인들의 무관심 속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내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문제 해결은 제자리걸음일 것이다. 간디학교가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그에 맞게 공동체 의식을 키워 가며 자치 활동의 문제, 그리고 그 밖에도 학교 생활 중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와 분위기인 것 같다. 간디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공감과 관심이 부족한 이유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무관심한 분위기, 그런 문제들이 너무 당연해져서 자연스럽게 자치 활동의 문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 역시 자치 활동을 주제로 글을 써야 할 때 문제점에 대한 공감도 힘들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막혔던 것 같다.

이제는 우리 간디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해 봐야 할 차례가 아닐까 싶다. 뭔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치 활동은 온전히 학생들의 몫이니까. 조금씩이라도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만족할 수 있는 자치 활동이 꾸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GOD정책의 축복이 있으리니

김예림 편집장(4학년)

축제, 논문, 가족회의 등에서 활약한 간디인들이 화제의 인물에 올랐습니다. 올 가을축제 1학년 연극 '공쥐팔쥐'에서 공쥐를 맡아 능수능란한 연기를 맡은 1학년 오승택! 논문을 통해 업사이클링 인형만들기로 학교에 봄을 일으킨 3학년 문서경! 타로, 시낭송의 밤MC 다재다능한 남자인 3학년 오정택! 학교의 떠오르는 사고몽치로 가족회의를 섭렵한 2학년 김지민! 하지만 간디인에 실릴 수 있는 화제의 인물은 단 한 명! 이렇게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영광의 화제의 인물이 된 사람은 3학년 오정택 군입니다!

오정택 군은 저번 호(2014 가을 호)에서도 타로 소모임 인터뷰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간디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타로남, 시낭송의 밤 MC, 최근엔 성평등 실천단장을 맡으며 학교 구석구석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름하야 GOD정책이라고 불린다죠. 이는 사람은 다 안다는 GOD정책의 매력탐구! 아직도 모르셨나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간디학교 3학년이자 타로도 할 줄 알고, 시낭송의 밤 사회자도 하고, 논문도 1차 통과한 오정택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새롭게 떠오르는 성평등 실천단장을 맡으며 활동하고 있어요.

화제의 인물이 되신 소감은 어떤가요?

처음 이 코너가 등장했을 때부터 한 번쯤 뽑혔으면 하고 있었는데 간디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참 감사해요. 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번 호

(2014가을호)에서 타로소모임만 인터뷰하고 화제의 인물에 오르지 못해서 조금 서운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저를 뽑아주신 간디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려요.

화제의 인물이 된 이유가 무엇인 것 같나요.

역시 타로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타로를 주제로 논문을 쓰면서 학교 사람들의 진로, 연애 등 상담도 많이 해줬으니까요. 타로야 논문이 아니어도 꾸준히 했을 것 같지만 논문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인정도 받은 것 같네요.



요즘 근황은 어떤가요?

논문이 잘 끝나게 되어서 여유를 즐기는 중입니다. 또 이제 곧 다가올 겨울방학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평정위(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위원회, 평화정착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재밌고 계속 하고 싶어서 내년 평정위 활동도 준비하고 있어요. 또 성평등 실천단장으로서 학교에서 실행하려는 성평등 실천 약속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제 내면의 변화를 위해?(웃음) 소설을 쓰기도 하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야리야리한 오정택이 아니라 몸집 큰 남자애가 되기 위해 운동을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할 일은 참 많은데 여유 부리고 있는 거죠.

나에게 타로란?

직설적으로 얘기해주는 친한 존재. 타로는 저에게 있어서나, 남에게 있어서나 예언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현재 나의 상황을 얘기해주는 좋은 친구죠. 힘들 때 기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요즘은 실력이 떨어져서 사람들 타로를 안 봐줘요. 방학 때 실력을 키워서 보답하겠습니다. 내년 즈음 타로문화가 학교에 잘 자리 잡으면 좋겠네요.

자신이 GOD정택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다면?

타로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또 타로도 타로지만 제가 말을 좀 잘하고, 공감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닌가요 싶어요.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편한 존재로 다가가게 된 거죠. 요즘은 덜하지만 학기 초에는 GOD정택이라고 많이 불러주셨어요.





몇몇 팬분들이 이름의 뜻을 궁금해 하던데.

사람들이 제 이름 뜻도 궁금해 하네요. 제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거든요, 살면서 한번? 밖에 보지 못했어요. 저희 집이 가부장적인 유교집안이다 보니 성씨와 돌림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인 오자와 돌림자인 택자가 붙게 되었고, 가운데 있는 정자는 바를 정(正)자예요. 투표 개표할 때도 많이 쓰죠? 그냥 바르게 살라는 뜻이에요.

외모 중 가장 출중하다고 느껴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음, 일단 저는 외모에 콤플렉스가 아주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걸리는데 그 중에서도 꼽자면 고르지 않은 치열이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반대로 그래도 제 외모에서 제일 괜찮은 부분을 꼽자면 맑은 눈인 것 같아요.

자신이 꿈꾸는 이상형은?

제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이유예요! 일단 저는 외모보다는 성격을 보는데요, 아이유가 그렇게 인간성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외모가 귀엽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좋고요. 큰 눈에 쌍꺼풀이 진 것도 참 예뻐요. (좋아하는 사람은 없나요?) 네, 아쉽게도 학교에는 아직 좋아하는 사람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3가지가 있다면.

음, 제가 사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웃음) 첫 번째로는 사람이 가장 좋아요. 가족, 친구, 선배 후배 다 들어가겠죠. 두 번째로 시물을 꼽자면, 스마트 폰! 스마트 폰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또 제가 가만히 앉아서 끄적이는 걸 참 좋아해서 공책도 제게 소중한요. 끝없이 적을 수 있으니까요.

간디학교에 타로 붐을 일으킨 오정택군! 논문이 끝나고 여유부리는 외중 함께한 인터뷰와 화보촬영이 참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할게요:D

10월

이 1	월 2	화 3	수 4	목 5	금 6	토 7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월 1

11월

이 1	월 2	화 3	수 4	목 5	금 6	토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월 1	2	3	4	5

9월~ 고등교육관

지금 학교 뒤편에는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등교육관'인데요!! 계속 미뤄졌던 고등교육관이 2학기 9월초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는 아직 진행 중 인데요, 앞으로 꾸준히 공사가 진행 되어서 아무 탈 없이 잘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10월 26일 오픈 하우스

이번 오픈 하우스는 더욱 스펙타클하게 돌아왔습니다. 오픈하우스는 서로 들어올 수 없었던 여 기숙사와 남 기숙사를 정해진 시간 안에는 맘껏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인데요, 방마다 재미있는 주제들로 꾸며져 볼거리가 넘쳐났습니다. 잘 꾸민 방은 오지랖에서 'FREE DAY'쿠폰을 상품으로 준다니 더 열심히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오픈하우스로 만나요!! *FREE DAY 이 쿠폰을 쓰는 날 하루는 기숙사 퇴소 시간이 없이 학교 안 내려가고 폭 잘 수 있고(수업 하기 전 까지) 간식차를 타고 기숙사를 내려가고 올라 갈 수 있다-



10월 17일 시낭송의 밤

가을바람이 가슴 한켠 스며드는 날, 한 가을 밤의 시 한편 읊어드리오.

가을 날 / 김현성

가을 햇살이 좋은 오후
내 사랑은 한 때 여름 햇살 같았던 날이 있었네
푸르던 날이 물드는 날 나는 붉은 물이 든 잎사귀가 되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지
그대 오는 길목에서 불 붙은 산이 되어야지
그래서 다타버릴 때까지 햇살이 걷는 오후를 살아야지
그렇게 맹세하던 날들이 있었네
그런 맹세만으로
나는 가을 노을이 되었네
그 노을이 지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았네

평소 자주 보고 듣지 못한 시들을 들을 수 있는 신선한 문화의 밤이었습니다. 재미도, 감동도 가득했던 시들로 올해 가을은 마음 든든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3일~19일 선거유세

한 해의 끝이 점점 다가옵니다! 또 다른 해를 맞이하기 전에 간디학교는 할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새로운 학생회장을 뽑는 일인데요!! 2학년, 4학년 중에 각각 중등회장과 전교 회장이 나왔습니다. 형제당인 박재성 군(2학년), 최형규 군(4학년). 지지당인 유지현 양(2학년), 김지형 군(4학년). 이렇게 두 팀의 회장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후보자들은 본격적으로 선거유세에 나서며 이 날 점심 강당에서 자신을 뽑내었습니다. 형제당은 랩으로 지지당은 트로트로 자신들의 이름을 알렸는데요! 앞으로의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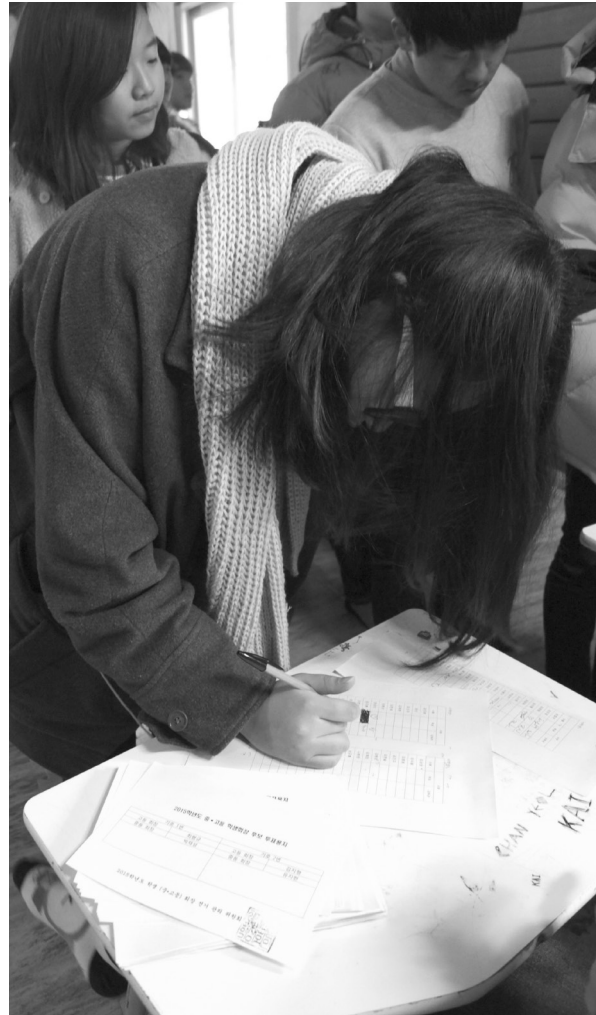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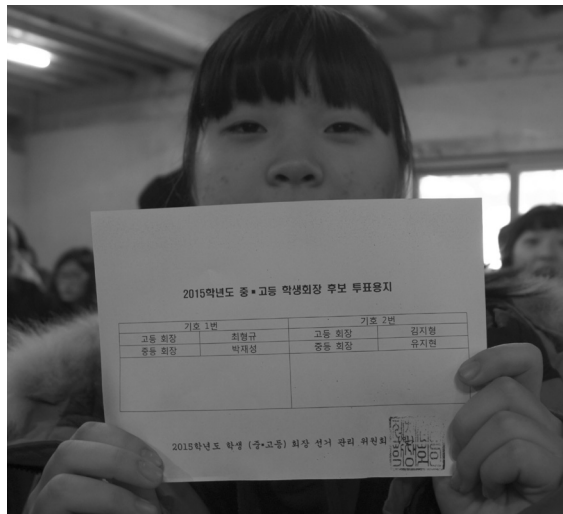
11월 20일 회장선거(토론회)

2015년도 고등회장과 중등회장을 뽑기 위해 선거가 열렸습니다.

11월 6일 후보자등록으로 시작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은 학생들의 지지를 얻으려 유쾌한 유세로 어필하기도 하고 토론을 통해 공약을 내보인 후보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더욱 잘 알 수 있었습니다.

11월 20일 이 일정들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대망의 선거 날!!! 과연 선거에 결과는?(두구두구두구..) 다음 봄 호를 기대해 주세요:)



11월3일~11월7일 인간의 조건

저번 10월 말에 진행되었던 '1박2일 규칙 되돌아보기' 캠프를 이어 '인간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상 퇴소가 늦어진다는 문제 대한 방안으로, 오전에는 1시간, 오후에는 30분씩 일정을 미루는 방식으로 진행된 시범 기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일정을 늦추게 되어서 오후 일정이 늦어지긴 했지만 아침에 잠을 더 잘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생활에 관련된 간담회와 회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자신에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동안의 생활을 잘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월10일 논문의 밤

11월 10일 새로운 '문화의 밤'이 찾아 왔습니다. 바로 3학년들의 논문 공연을 발표하는 문화의 밤인데요!! 논문의 밤의 발표자 안효원 양은 춤을 췄고, 박지담 군은 랩, 신동현 군은 영상, 김가람 군은 모노드라마 연극으로 정말 다양하고 멋진 발표였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느껴져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11월14일~11월15일 김장

1년 동안 먹을 김치를 담그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이 날은 간디인들이 모두 모여 김장을 합니다. 첫 번째 날엔 김장할 배추를 뽑고 소금물에 담가놓는 작업과, 김장 속(양념)에 들어갈 각종 야채들을 다듬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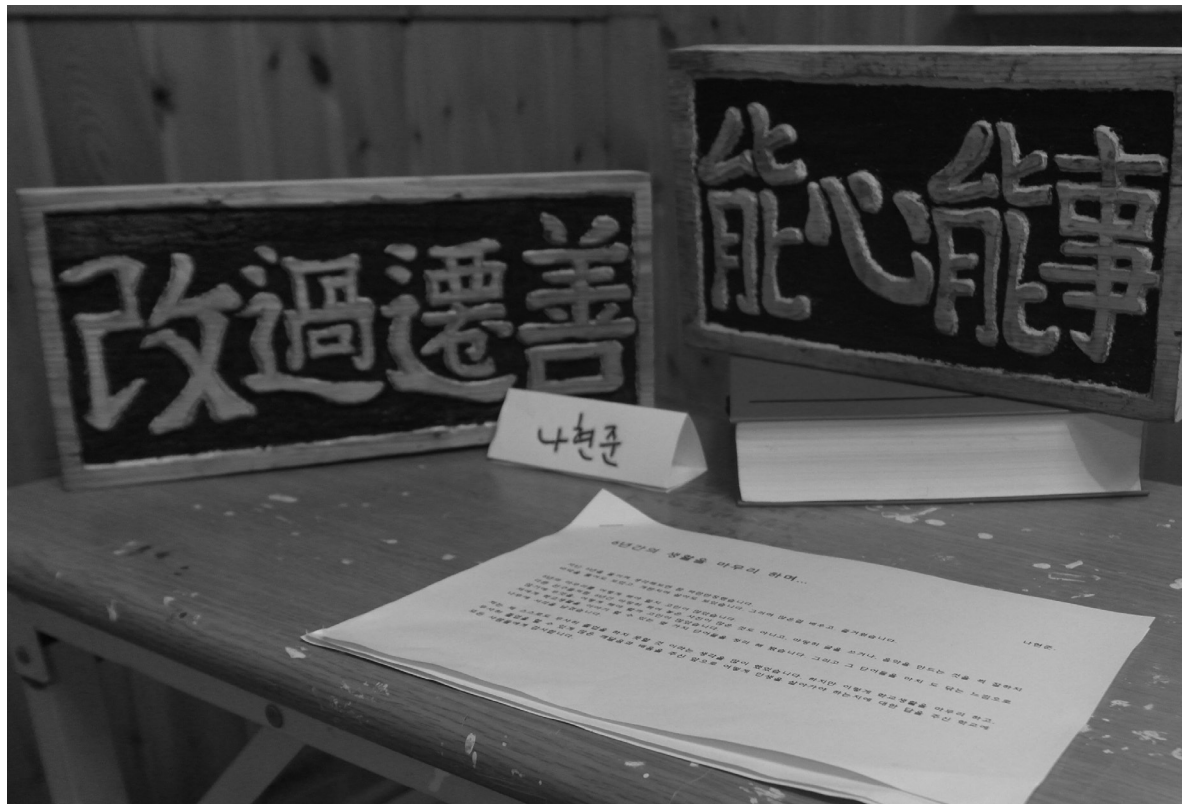
두 번째 날엔 본격적으로 버무리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버무리기를 하며 서로 먹여주기도 하고 간디인들끼리 다정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버무리기가 끝나고 김장의 묘미, 수육이 등장했습니다!! 수고했다며 그날 김장한 김치와 수육을 맛있게 먹으며 김장을 마쳤는데요! 1년 동안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11월24일~27일 6학년 포트폴리오 전시

2학기 말 무렵 6학년들의 포트폴리오가 열립니다.
간디에서의 6년을 정리해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는
6학년들의 마지막 교육과정인데요.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포트폴리오는 언제 봐도 재미있습니다.
어느새 졸업식이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
동시에 이제 선배들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아쉽기만 합니다. 길었던 6년을 잘 정리하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한결 기자(1학년)

가을호를 쓰지 얼마 안된 것 같았는데 벌써 겨울호도 지나보내는군요.
올해 기사 쓰느라 일상다반사 모두 수고하셨고 내년에는 정식기자가 되어 더 알찬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최유경 기자(1학년)

진짜.... 엉망이었어요ㅠㅠㅠㅠ
몇번이나 찾아가도 계속 조연해준 편집장 예림언니, 기사 다 썼냐며 매일 같이 걱정해준 우리반 여자애들, 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진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마감을 한참이나 넘긴 벌은 달게 받고, 다음에는 더 나은 기사로 찾아뵙겠다는 지킬수없는 약속....★



이령경 삽화기자(1학년)

이번호는 아무것도 할것이 없어서 팽잡았다고 좋아했는데 간디인 갤러리를 갑작스럽게 맡게 되어 힘들었?어요...어..음 ...이가원 언니미안!!!!



박성현 사진기자(2학년)

..... 저번 호는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호는 느긋하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후회가 되요 ㅠㅠ 가정학습동안 놀러만 다니고 난 무슨 자신감이 있었던 거지?ㅋㅋ 이번 마감이 풀 강의들과 겹치게 되서 밀린 일들을 끝내려면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귀차니즘은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ㅠㅠ 결국 마감을 코앞에 두고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네요....ㅋㅋㅋ 그래도!!! 마감을 해내니 뿌듯해요 ㅎㅎ 마지막으로 모두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이한술 기자(2학년)

이번에는 마감을 엄청엄청 늦게냈어요...죄송합니다ㅠㅠ진짜 어떻게 써야할지 감이 안와서 아무것도 안한게 잘못이었네요ㅠㅠ그래도 아침 일찍 인터뷰 하러 와주신 수자쌤! 쌤은 저의 글에 길을 터주신 구세주같은 존재!♥그리고 맨날 가서 찡찡대는거 다 받아준 예림언니! 진짜진짜 미안하고 사랑해♥지킬 수 없는 약속이어도 다음호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ㅠㅠ방학때 다시 힘을 모아서 다음 봄호에는 마감 빠삭하게 지키도록 노력할게요!(과연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일상다반사 내년에도 파이팅해요♥ 일년동안 수고많았어요!!



이예슬 기자(2학년)

이번 호도 열심히 쓴다고 했는데 결국 마감을 넘겨버렸네요ㅠㅠ같이 쓴 별언니 수고짱짱많이했어 미안한게너무많아..ㅋㅋㅋㅋ
예림언니도 이번호 진짜진짜 고생많이한거같아서 미안하구 일상다반사 모두모두 수고하셔세요♥ 늘 하는 말이지만 다음 호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원 사진기자(3학년)

안녕하시오 안효원 보스입니다. 와 이번호는 정말 어메이징했습니다. 논문과 함께하는 일상다반사라니... 하하하하하하 유독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서 힘들게 힘들게 아니 더 열심히 했던 나의 동무 성현이가 참 이쁩니다.♥♥♥♥♥♥사랑하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사랑하는 예림언니TT언니가 편집장 하는 1년 동안 진짜 수고 많이 했어!! 우리 기자들!!모두 행쇼!



김민석 기자(3학년)

1학년 신입기자 이한결 군에게 배웁니다. 나도 1학년 땐 마감날짜를 칼처럼 지켰는데... 서울시 교육감 후보처럼 외칩니다. "마감을 못 지키는 못난 기자를 둔 편집장에게 정말로 미안하다~" 어쨌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갑니다. 내년엔 초심을 되찾고 신선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가워요 후원인 기사는 정말로 즐겁고 좋았습니다. 변기영님 감사합니다.



손채은 기자(4학년)

의도치 않게 너무 늦게 글을 넘긴 것 같아요. 아. 정말이지 편집장하는 예림이한테 너무 미안한 기분. 점점 글을 써갈수록 나태해져만 가는 것 같네요. 앞으로 좀 군기도 바짝 올려서 빠릿빠릿 써야 할텐데. 아직 11월 밖에 안됐는데도 제천간다는 너무 추워요. 분명 글 쓰기 시작할 땐 단풍이 절정이었는데 지금은 다 떨어지고 없네요. 아~ 가을타나 잠이 오네. 이번 겨울 호도 어찌어찌 하다보니 넘어갔네요. 다시 돌아올 땐 따뜻한 봄이겠죠? 2015 봄에 다시 만나요!



이가원 삽화기자(4학년)

짜잔! 오랫동안 돌아온 이가원 기자의 스케줄러입니다! 거의 1년만인가요? 다들 그리워 했으리라 믿습니다...ㅎㅎ오랜만이라서 항상 짐처럼 느껴졌던 스케줄러 그리기가 이상하게도 재밌었습니다. ㅎㅎ 역시 가끔은 쉬는 것이 오히려 가동력이 되나봅니다. 하지만 스케줄러 그리는 것이 재밌어지자 간디인 갤러리가 무지막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일상다반사에 들어와서 이번 호 간디인 갤러리 구하는 것만큼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ㅠㅠ 췌든!!!! 같이 삽화기자 열심히(?) 한 영경이, 스케줄러 잘 그렸다고 칭찬해준 친구들, 특히 이번호에 매우매우 힘들어 보였던, 다크서클이 발밑까지 내려오던 우리의 편집장님! 일상다반사 모두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별 기자(5학년)

-마지막 간디인이네요. 끝까지 마감을 지키지 못한 게 너무 아쉽지만 일상다반사에서 같이 부대 끌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좋은 글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김예림 편집장(4학년)

이번 겨울호는 저 혼자 유난히 힘들었는데요, 우연히 본 2012년 간디인에서 재밌게 글 쓰던 제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어느새 2년이나 지나 편집장을 두 번째 맡고 있다니...! 좀 늦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즐겁게 해보려고 해용! 모두들 수고했어요. 다만 마감을 잘 지켜서 편집장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그날까지...!!!



동유럽 여행포인트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만세로 요청하시면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1 동유럽과 하나가 된다

-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고풍스런 빈의 건물 어딘가에서 빈의 예술가들과 함께 왈츠를 배운다
왈츠를 배우다 지치면 비엔나 커피와 간식을 입에 물게 되고, 과정이 끝나면 수강증명서를 받게 되는 빈에서의 특별한 경험.
- 유럽의 기차, 독일의 트램, 체코와 오스트리아의 지하철을 타고, 유럽의 현지인과 하나가 된다



2 동유럽의 역사를 보다

- 독일의 전쟁, 분단, 통일을 통해 배우다
- 베를린의 역사 깊은 대학, 훔볼트대학을 방문하다
- 동유럽 민주화를 이끌었던 주역 체코 의회를 둘러보다



3 동유럽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체코의 수도 프라하와 체스키크룸로프를 방문한다
- '북구의 피렌체', '바로크의 도시' 드레스덴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다
- 모차르트의 도시 잘츠부르크와 훈데르트바서의 건물을 보며 사람과 자연, 음악과 예술이 어우러짐을 본다



2014년 7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저희 간디공동체를 후원해주신 분입니다.
CMS와 계좌 입금, 물품 후원등 후원인의 따뜻한 마음은 제천간디장학회, 제천간디학교 체험학습비와 사회활동비, 대안교육연대 지원금, 덕산지역 아동단체 운영비로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MS 후원 443명 1,680건 23,838,000원 / 계좌 입금 후원 5명 17건 170,000원

- (주)두인기전 강경선 강나영 강명이 강민택 강상진 강수돌 강순자 강승구 강신현 강영상 강용중 강용택 감지혜 감창석 고규원 고수원 고지철 고희라 공정호 공지환 공치성 광영현 광용호 구경란 구미숙 구지민 권숙영 권승호 권지현 권호정 금상호 길주연 김갑유 김경민 김경민2 김경순 김경영 김경자 김경희 김계숙 김광태 김구환 김극준 김기만 김남수 김남식 김대석 김덕수 김도연 김동현 김란경 김만우 김명구 김명숙 김명철 김명희 김명희2 김문선 김문혁 김문환 김미선 김미옥 김미정 김배홍 김백영 김병섭 김삼부 김상덕 김석조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태 김승새봄 김수진 김승진 김양진 김영경 김영규 김영란 김영삼 김영숙 김영우 김영한 김영희 김용규 김용남 김용섭 김용철 김유태 김윤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정 김재권 김정라 김정미 김정일 김종성 김종우 김종원 김종태 김지식 김지연 김지영 김진태 김태홍 김평호 김혁규 김현기 김현김 현식 김현일 김현중 김현진 김혜림 김혜숙 김혜정 김호연 김희교 김희균 남용기 남호섭 노경수 노상규 노선영 노희석 덕산LG주유소 도승연 라기호 라성호 류명옥 류창현 마미경 마석훈 마정애 문성룡 문성연 문신호 문효선 민병선 박경애 박경호 박기석 박동순 박동순 박동필 박명란 박봉규 박서영 박성수 박성열 박성열 박영문, 김숙정 박영선 박영희 박용규 박인옥 박장식 박종명 박종주 박진수 박창순 박채영 박현준 박혜연 박호성 박환홍 박홍식 배영수 배필늘 백동민 백동훈 백영기 백미숙 변기영 변소영 빈중일 서홍원 선미식품 성정미 성호종합주방 소언섭 손동훈 손병근 손영미 손정현 손주영 손진근 손진운 송윤순 송지은 신동운 신부순 신영희 신윤숙 신주영 신현덕 신현정 안두용 안미숙 안성현 안정환 안주연 안주현 안준영 안진희 안춘자 안효진 양병만 양상모 양서희 양수연 양자영 양정숙 양화숙 양후남 어동수산(주) 오강순 오명택 오무진 오병갑 오보환 오영진 오의석 오익문 오정훈 오혜영 오호근 우성섭 우성호 우영희 원정석 원현구 유경오 유성희 유수진 유연열 유운모 유원유통(농산물) 유인수 유일상 유준하 유증선 유지상 유춘자 유탕규 유한목 유현옥 유현영 윤도희 윤민호 윤보영 윤숙경 윤양수 윤은주 윤한식 윤호선 은종복 이강욱 이강훈 이광일 이근행 이기하 이기호 이동우 이명조 이명희 이미경 이미경2 이미경3 이민주 이보완 이봉준 이상래 이상복 이상운 이상현 이상훈 이석운 이선애 이선재 이상록 이성호 이소안 이수경 이수미 이수진 이수진2 이순화 이슬비 이승민 이승섭 이승욱 이승환 이양환 이예준 이오순 이요훈 이웅수 이윤철 이은신 이은희 이재성 이재용 이정석 이정선 이정섭 이정아 이정태 이종주 이종태 이종현 이주엽 이주는 이준용 이진석 이진우 이철희 이태구 이한진 이현주 이혜림 이호창 이홍구 이화숙 임남규 임반석 임병포 임성희 임영배 임영빈 임은숙 임진희 장규식 장미자 장성운 장영순 장일경 장진숙 장현섭 장형철 장희숙 전미영, 손현석 전병택 전봉균 전수미 전영복 전원기 전주란 정경훈 정다운 정명숙 정문자 정문희 정상인 정석현 정성숙 정연경 정영숙 정영환 정이영 정재민 정재윤 정지은 정태균 정한경 정희정 조경선 조경애 조경희 조동일 조미숙 조봉석 조상희 조수경 조숙자 조영도 조주환 조찬규 조창아 조철연 조철연 지연철 진상정 진성기 진은주 진정란 차상진 차영순 채상병 채서운 채신자 천희진 최 경우 최도연 최문택 최상운 최선주 최선희 최 숙 최연호 최영남 최영준 최용 최인화 최일훈 최재민 최재화 최재훈 최종현 최진웅 최홍석 하승렬 하영아 하윤주 하태광 한광덕 한상철 한용택 한 현 허미경 허성희 허영순 형제수산 홍금자 홍기봉 홍수연 홍원희 홍현일 황국덕 황달남 황선태 황소연 황인명 황인숙

- * 이달용님께서 여러 가지 의약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 * 주변 분들에게 간디공동체 CMS후원 가입을 권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 기존 회원 분들도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추가 서류 제출없이 증액이 가능합니다.
- * 소식지 받으실 주소, 후원 계좌 변경,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간디공동체는 후원인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제천간디학교 살림터 043)653-5791/ 팩스 043)653-5798 / 고희라 010-2620-8891



간디IN
2014 겨울

더불어 행복한 사람 **간디학교** gandhischool.org

제천간디학교지 계간《간디IN》2014년 겨울 호(통권 33호) / 발행인 손진근 / 발행 제천간디학교 / 편집장 김애림 / 담당 교사 김정환, 양정호 / 기자 (학년순) 한별, 이기원, 손채은, 김민석, 안효원, 이예슬, 이현슬, 박성현, 이영경, 최유경, 이한걸 / 편집 및 제작 세민화체 / 발행인 2014년 10월 24일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고리 92-3(우편번호 390-8522) 전화 (043)643-5971 ~ 3 팩스 (043)653-5798 / http://gandhischool.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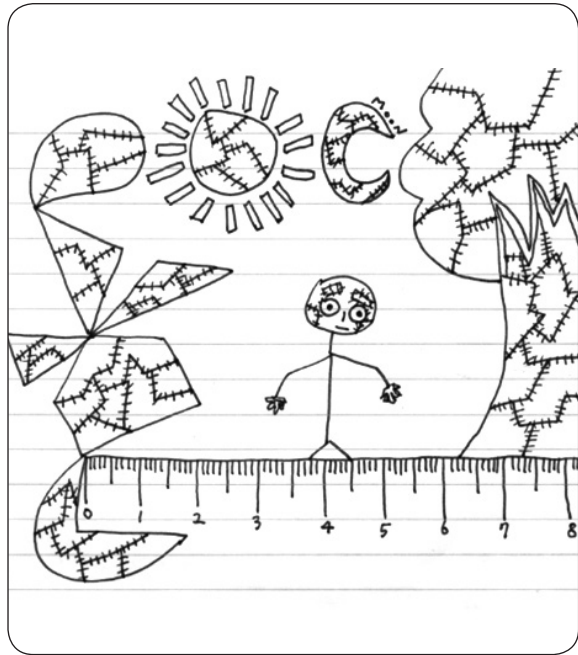


그림 · 이시은(3학년)

차민경(2학년)

길

살다보면 포기해야 하는 날이 오고

살다보면 선택해야 하는 날이 온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이길.



태국 청소년 여행학교



나과우끼우 여행학교
공생의 마을살이?

나과우끼우
공생의 마을살이

2015년 1월 9일(금) ~ 16일(금)
6박 8일 / 청소년 누구나

옛 란나왕국의 수도이자 태국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치앙마이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지가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둬으로써 태국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배움과 성장의 여행입니다. 아이들이 접해본 적 없는 사람, 마을, 그리고 공생의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하는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 호텔이 아닌, 태국인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합니다
- 관광소가 아닌 태국인의 공연을 함께 즐깁니다
- 코끼리를 타지 않고, 친구가 됩니다
- 렌트카가 아닌, 현지의 교통수단(생태우와 기차)을 이용합니다
- 관광이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여행을 합니다
- 여행의 모든 과정을 태국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태국어를 몰라 더듬거리는 3살짜리 아기 매와 아이, 따, 잠보에게 사랑 받으면서 생각했다.
우리엄마, 아빠가 정말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살았던 거구나.
- 태국 공정여행 참가자 이수빈 학생 수기 중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세로 요청하시면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주)공정함에 감동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대표전화 042) 335-3600 | 주소 301-80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30번길 41 (대흥동 222번지 4층)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정번호 제 2012-061호 | 관광업 등록번호 제 185호-대전광역시 중구(국외), 제 233호-대전광역시 중구(국내)
인허가보증보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해외 제 06-14-0137호
홈페이지 www.fairtravelkorea.com | 블로그 fairtravelkorea.tistory.com | 웹카페 cafenaver.com/riceterrace

